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년 2월
석사학위 논문

한·중 세시풍속 관련
언어 표현 비교
연구

-명절 관련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주일만

한·중 세시풍속 관련
언어 표현 비교
연구

-명절 관련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nguage expressions of
seasonal customs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ed on the language about Festival-

2014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주일만

한·중 세시풍속 관련
언어 표현 비교
연구

-명절 관련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희숙

이 논문을 국어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주일만

주일만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수중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금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희숙 (인)

2013년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차 례〉

1. 서론	7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7
1.2. 선행연구 검토	8
1.3. 연구 대상 및 방법	15
2. 한·중 세시풍속의 유형 및 특징	17
2.1. 한·중 세시풍속의 유형	17
2.2. 세시풍속 언어의 특징	25
3. 한·중 명절 관련 언어 표현의 양상	27
3.1. 어휘	27
3.1.1. 한국 명절 관련 어휘 양상	27
3.1.2. 중국 명절 관련 어휘 양상	31
3.2. 관용표현	34
3.2.1. 한·중 명절 관련 성어의 양상	35
3.2.1.1. 한·중 명절의 사자성어 양상	35
3.2.1.2. 한·중 명절의 고사성어 양상	39
3.2.2. 한·중 명절 관련 속담의 양상	40
3.2.2.1. 한국 명절의 속담 양상	41
3.2.2.2. 중국 명절의 속담 양상	59

4. 한·중 명절 관련 언어 표현 비교	71
4.1. 한·중 명절 관련 언어 표현 공통점	71
4.2. 한·중 명절 관련 언어 표현 차이점	78
5. 요약 및 결론	82

참고문헌

부록

<표 차 례>

<표 1> 한국의 세시풍속	18
<표 2> 중국의 세시풍속	20
<표 3> 한국의 명절	22
<표 4> 중국의 명절	23
<표 5> 한국의 명절 관련 어휘 양상	27
<표 6> 중국의 명절 관련 어휘 양상	31
<표 7> 한국의 명절 관련 사자성어 양상	36
<표 8> 중국의 명절 관련 사자성어 양상(1)	36
<표 9> 중국의 명절 관련 사자성어 양상(2)	39

中文概要

語言是隨著人類社會產生而產生的，是人類最重要的交際工具，是人們進行溝通交流的重要表達符號。人們藉助語言保存和傳遞各種文化現象與文明成果。

民俗是社會長期發展的歷史過程中，歷代沿襲的習慣。它最初開始於人類社會群體生活的需要，在特定的民族、一定時代和地域中不斷形成，擴大和演變，為民衆的日常生活服務，最終成為日常生活的一部份。而不管哪個國家或者民族，要想知道其民俗性，從歲時風俗開始瞭解無疑是個不錯的選擇。因為歲時風俗是地理條件、思想以及在歷史演變下形成的傳統文化。從文化的角度去看，歲時風俗包含了宗教，社會，娛樂等各方面內容。可以說，歲時風俗是各種要素的綜合，理解了一個國家或者民族的歲時風俗，對其全盤文化就有了一個大概的了解了。

韓國和中國由於地理位置相鄰，歷史文化相互影響，使得關於文化的語言學研究更為重要。語言的文化背景徹底瞭解之後，才能更好地學習和掌握這門語言。特別是，中韓兩個國家受儒教思想影響，從古至今都對歲時風俗特別重視，在這個影響下，加強對節日有關語言的比較研究就顯得更為重要。

據此，本文所討論的是，韓國和中國的“歲時風俗”部份中“歲時名節”的語言，其包括詞語，成語和熟語等的共同點和差異點。希望能對學習韓語的中國學生以及學習中文的韓國學生在今後的語言學習中提供幫助，並對各國家的文化進行更深一步的瞭解。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nguage expressions of seasonal customs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ed on the language about Festival-

Zhu Yiman

Advisor: Prof. Gang Huisuk,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s Korea and China have deep historical, geographical and cultural relationship and exchange more frequently than any other countries, there are muc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not only in language but also folk biological dimension. Therefore, this study divided holiday related language expression out of Korean and Chinese annual cyclical rituals into two, vocabulary and idiomatic expression for comparative analysis.

There are many compounded words of 'Noun + Noun' structure in the language expression related to holiday among the Korean and Chinese annual cyclical rituals and the meaning of these vocabularies are same. In case of four characters idioms, there are synonyms isomorphics in the phase of form. In structural grammar, both languages consist of subject and predicate. As a result, it is observed that lots of holiday related proverbs in both countries were related with holiday festival food.

For the language expression related to Korean and Chinese holidays, the meaning is same in terms of vocabulary but there exists other vocabulary with

different word class. In case of four characters idioms, only Chinese express special holiday image containing legend. In case of proverbs, there was difference that homonyms appears only in Chinese folk wisecracks.

This study did not cover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eep structure of holiday related language expression. However, it meets qualification of master thesis in the point that it has proposed list of holiday related language expressions which had not been covered so far.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일정한 언어공동체의 문화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표현된다. 언어는 인간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의 창조와 전승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지만 문화 속에서 차지하는 언어의 비중이 매우 크므로 제2 언어의 습득¹⁾은 단순히 도구적인 목적으로 습득하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제2 문화의 습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화라는 큰 영역 안에 여러 가지 세부적 부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언어이며 그 언어는 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하며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 속에는 그 언어가 생성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고, 그 사회의 모든 문화가 언어 속에 용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어는 다양한 문화 양상을 소개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민족의 문화전통과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기 때문에, 언어를 학습하면서 그 언어가 속해 있는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을 간과한다면 해당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어떤 나라든지 또는 민족이든지 그들의 문화나 민족성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들의 풍속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풍속은 지리적인 여건과 사상 및 역사가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오면서 만들어진 문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축적된 문화가 바로 전통문화이며, 이 전통문화 속에는 그 민족성과 국민성이 그대로 내재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다. 문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시풍속은 의식주를 비롯하여 종교·사회·오락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세시풍속은 종합적인 요소를 지닌 문화 향상이기 때문에 한 민족의 세시풍속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

1) 백현숙(1992)에서는 제2언어를 모국어가 아닌 두 번째로 습득된 언어라고 정의하였으며, 자연적 제2언어 습득 연구는 1960년대 말 내지 1970년대 초에 시작되었고, 1970년대 중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1언어 습득과 제2언어 습득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수행되면서 자연적 제2언어 습득은 언어습득 연구와 외국어 교수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언어습득 유형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서로의 문화를 수용하였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수²⁾가 많을 뿐 아니라 중국에 있는 대학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어 교육의 특성상 언어만 익히는 것보다 그 언어의 문화적 배경을 함께 습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때문에 풍속에 관한 언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시풍속에는 그 사회의 축적된 풍속, 관습 등 생활 문화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예로부터 풍속을 중시하였으므로 명절에 관한 언어 표현의 비교 교육은 더욱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과 중국 세시풍속 가운데 특히 명절에 관한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시풍속은 일 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일명 연중행사라고도 하고, 시령(時令)이라고도 하며 시령은 월별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월령(月令)³⁾이라고도 한다. 1년 단위로 반복되어서 나타나므로 ‘시계성(時計性)’, ‘순환성(循環性)’을 지닌다(임동권 1995:4). 세시풍속은 단순히 풍습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을 또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각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의 풍습에 관련되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더디거나 아예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어를 공부하는 한국인 학습자들 역시 같은 경우를 경험할 수 있는바, 명절을 비롯한 세시풍속 관련 어휘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2. 선행연구 검토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나타난 세시풍속 관련 언어 표현을 비교한 연구 성과는 거

2) 2013년 9월 30일 현재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유학생은 총 외국인 유학생 수의 65%인 57,056명을 차지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9월호, p.27).

3) 습은 季節의 의미를 지닌다.

의 없다. 다만, 그동안 한·중 세시풍속을 민속학적 차원에서 비교한 연구는 다양한 편이다.李明蓮(2006)을 비롯하여 권오경(2011), 김지영(2007), 박진태(2008), 고학우(2009), 오정화(2009), 왕락(2011)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李明蓮(2006)은 한·중 세시풍속 전체를 비교 연구한 것이라고 한다면, 권오경(2011)은 민요에 대해, 나머지 연구들은 명절에 대해 비교한 연구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상의 연구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李明蓮(2006)은 한국과 중국의 민간 세시풍속을 고찰하여 비교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전통 세시풍속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사, 농사, 놀이, 건강, 음식 관련 세시풍속에 초점을 맞춰 연구했다.

먼저 제사 관련 세시풍속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효도(孝道) 행위로 여기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제사를 고대 임금들이 하늘에 제사하거나 백성들이 임금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부터 점점 발전, 변화해 온 훌륭한 사람을 숭배하고 편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위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농업과 관련된 세시풍속이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 세시풍속은 명절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국에만 있는 민족적 색채가 짙은 민간 풍속이라고 하였고 한국 사람도 많은 민속놀이를 하지만 대부분 풍년을 기원하거나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풍속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모두 놀이와 관련된 세시풍속은 많이 있지만 그 놀이에 숨겨 있는 실제 의미는 다르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세시풍속은 달과 관련된 풍속이 많다고 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밝은 빛을 띠는 둥근 달이 중국에서는 단원(團圓)의 의미를 상징하고 이것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명절마다 멀리 떨어져 있던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날을 즐겁게 보내는 것을 무엇보다 더욱 중요시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이 여성의 음성원리(陰性原理)를 상징하고 한국 사람은 달을 보고 농사지었다고 하였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 유형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이나 중국 세시풍속은 건강이나 평안을 빌면서 생활을 즐긴다고 하였다. 한·중 두 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건강을 중시하여 중의(中醫)에서는 몸을 잘 다스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시풍속을 통하여 두 나라 사람들이 매우 일찍 계절의 변화에 근거하여 거기를 선택하여 먹음으로써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법으로 신체를 보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식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병하치(冬病夏治) 풍속도 한의학 차원에서 사람들은 건강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명련(2006)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민간 세시풍속을 비교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전통문화와 두 나라 사람들의 의식구조 등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은 예로부터 전통적인 농업사회라서 모든 세시풍속은 농경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 세시풍속은 집단적으로 집집마다 촌락마다 또는 민족적으로 관행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셋째, 한·중의 세시풍속은 모두 고사, 점복, 예조, 금기, 부속, 부적 등의 민간신앙을 비롯하여 음식, 복식, 놀이, 예술, 농경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사실들이 복합된 종합성을 띤 문화 현상이라고 하였다. 다만, 연구 자료에 관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과거와 현재의 세시풍속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시풍속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세시풍속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고 연구 범위가 너무 넓어 개별 세시행사에 관한 심층적인 의미를 밝혀내지 못한 점은 가장 큰 한계라고 본다.

권오경(2011)은 한국과 중국의 정월부터 12월까지 세시풍속 민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열두 달 달거리(월령) 형식을 유지하는 노래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열두 달 형식과 관련된 용어가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의 세시풍속민요는 농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월령’의 의미는 거의 없고 일상생활을 노래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세시풍속 민요는 열두 달 노래, 혹은 달거리민요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중국의 열두 달 세시풍속 민요는 세시풍속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열두 달 형식으로 노래하는 유형이 공존한다고 하였다.

달마다 한중 세시풍속민요에서 주로 노래되는 내용⁴⁾을 비교한 결과, 표면적으로

4) 한국과 중국의 세시풍속 민요를 월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정월 15일 대보름의 주요 행사는 망월(望月), 답교(踏橋), 망부(望夫)이다. 중국의 세시풍속 민요에서는 대부분 새해 신년맞이를 노래한다. 주요 행사로는 등 달기, 악달놀이, 세배, 음주 등의 행위를 소재로 삼고 있다. 연날리기, 답교, 망월, 폭주놀이 등도 가끔 보인다.

2월은 한국 세시풍속민요의 경우, 대부분 청명 한식일(寒食日)을 노래한다. 중국의 경우, 한식을 노래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화조(花朝), 춘분(春分) 등의 절일이나 절기를 표명하고 용대두(龍擡頭)를 주로 언급한다.

3월은 한국의 민요에서는 대부분 심결날에 제비가 돌아오는 내용을 노래한다. 중국의 경우, 대부분 청명을

는 비슷한 것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같은 세시라도 전혀 다른 내용을 노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세시풍속 및 그 세시풍속을 인식하는 민중의 의식이 이질적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능 중심으로 두 나라의 세시풍속 민요를 살펴본 결과, 정서 표출 기능이 두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민중의 애환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일반 민요의 성격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한국이 여성성 중심이라면 중국은 남녀 양성으로 정서 표출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노동의 과정에서 열두 달 형식을 취함으로써 반복적 리듬을 타고 노동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노동과 유희의 혼합 기능이 나타나고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의식 기능도 두 나라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했다. 매월 나열과 차별의 장치를 동원하여 정보를 알려줌과 동시에 흥겨움을 동반하는 경우 열두 달 세시풍속민요는 유희와 교술의 혼합 기능을 수행하고 했다. 다만, 이 연구에서 더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지역별, 시대별로 보다 더 세밀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정월부터 12월까지 모두 갖추지 않았거나 독립된 개별 민요로 불려지는 노래까지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노래한다.

4월은 한국에서는 대부분 초파일을 노래하며 관동놀이, 꽃구경 놀이를 내용을 삼는다. 중국의 경우, 특별한 세시풍속을 언급하지 않지만 장미나 붓꽃이 핀다는 것을 노래하고 모내기, 차 따기 등의 농경생활을 내용으로 삼는 노래가 많다.

5월 세시풍속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공통으로 단오가 으뜸이다. 한국의 단오일에는 추천하고 입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중국의 경우는 종자를 먹고 용선을 타는 것이 주 내용이다.

6월의 대표적인 한국의 세시풍속은 유두일(流頭日)이다. 중국은 6월을 과반년(過半年)이라 한다. 대개 더욱 날씨를 노래하며 특별한 세시일을 언급하지 않는다.

한국의 7월 세시풍속 민요에서는 대부분 칠석을 노래한다. 중국의 경우도 같다.

8월은 한국과 중국이 공통적으로 한가위, 즉 중추절을 노래한다.

9월은 한국의 중구일(仲九日), 중국의 중양절(重陽節)이 있는 달이다. 두 나라 모두 국화, 단풍구경, 기러기가 망부하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10월은 한국에서는 천마일(天馬日, 혹은 초오일), 상달이라는 세시절기가 많이 나온다. 고사를 지내고, 기러기, 달, 단풍, 낙엽 등이 그리움, 외로움을 유발하는 소재가 된다. 중국은 입동절기를 자주 언급한다.

11월의 경우, 한국은 동짓날이라는 풍속일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팔죽 먹기가 주 내용이지만 중국은 동절기를 주로 다룬다. 즉, 중국의 경우 동지는 계절 기준으로만 존재하고, 눈이 많이 내리는 것, 나무깎기, 과세격정이 노래의 주 내용을 이룬다.

한국은 선달 그림날에 신구환세, 관동, 복조리 사고 파는 내용을 노래한다. 중국은 극한 겨울, 눈발을 노래하지만 특별한 세시풍속을 언급하지 않는다. 수선화, 매화가 피고 과세하기, 제사(동지), 대련(對聯) 준비, 불꽃놀이, 망부 등이 주 내용을 이룬다.

김지영(2007)은 한국과 중국의 명절 문화 비교를 통해서 두 나라 명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중국과 한국에 있어서 대대로 내려오는 명절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명절 풍속이 이루어지게 된 근원을 따져보면 인류의 원시적 신앙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신령이 가정을 지켜 줌으로써 무사태평하기를 기원하거나, 약초를 문에 거는 등의 행위로 제액(除厄)을 나타냈지만 현재는 무속과 민속 신앙 등은 멀어지고, 즐거움의 놀이, 축제의 분위기가 더 확고한 자리를 매기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연구 자료 선정에 있어서 한국의 자료로는 『동국세시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국세시기』는 한국의 세시기 중에서 내용이 가장 풍부하여 한국의 대표할 만한 세시기라고 할 수 있으나, 한 시기의 세시기만으로는 한국 전체 세시풍속의 의미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의 자료는 『중국대세시기 I, II』를 자료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논의에 있어서는 현대의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세시기에 기초한 중국 전통 세시풍속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박진태(2008)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단오제에 초점을 맞추되 제의적 측면은 단오제로, 개별적 풍속은 단오 풍속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중국은 세시풍속 면에서 공유 지대가 넓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근이형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하에 한국과 중국의 단오절을 제의적인 골격, 곧 단오제와 개별적인 풍속, 단오 풍속으로 구분하고 제의적 측면 기원, 기능, 변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제의적 측면은 단오제의 생성 배경과 변모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는데, 단오 풍속에 관한 비교는 분명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고학우(2009)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단오문화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두 나라의 단오절 민속은 문헌을 조사하여 논의하였고, 특히 주목하였던 강릉단오제는 실제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하였다.

중국 단오와 한국 단오 모두 5월 5일의 풍속이다. 한국과 중국의 공통적인 단오절 민속은 벽사풍속이다. 연구 결과, 한국과 중국의 단오절 민속은 벽사 풍속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두 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건강을 중시하여 몸조리를

잘하려는 의식이 강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지역에 따라 단오절 풍속에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지역적 특징과 차이점은 각지의 풍속 습관 차이, 기후 차이 등 여러 방면의 차이로 인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강릉 지역만을 대상으로 설정해서 직접 답사하여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에 따른 한·중 세시풍속 비교 연구가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오정화(2009)는 한국과 중국 정월의 세시풍속을 기능별로 비교하여 한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세시기를 선정하여 정월에 행해졌던 세시행사를 추출하고, 이들 세시행사를 종교적 기능, 윤리적 기능, 오락적 기능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종교적 기능의 경우 한국의 정월대보름이 중국의 원소절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종교적 기능을 가진 세시행사들이 나타났는데,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윤리적 기능의 경우 한국의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 나누어 먹기’의 세시행사가 나타났고, 중국의 원소절에는 放燈(방등) 행사를 기점으로 猜燈(시등)⁵⁾, 燈市(등시), 황화구곡등, 大頭和尚(대두화상), 扮稻秧歌(분도앙가), 打什不聞(타십불문), 跑竹馬(포죽마), 花兒市(화아시) 등 다양한 사회적 행사들이 많이 열린다고 하였다. 오락적 기능의 경우 한국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다양하게 행해진 반면 중국의 경우 아이들의 놀이가 주로 이룬다고 하였다. 다만 하나의 세시행사가 여러 기능을 가진 경우도 있는바 그러한 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왕락(2011)은 한국과 중국의 설날(춘절)의 전통 풍속을 고찰하여 비교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전통 세시풍속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설날의 전통 예속에 보면 한국 설날 풍속은 조상 숭배와 효(孝)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설날은 조상신과 자손이 함께 하는 아주 신성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중국에서는 춘절에 전 가족이 함께 모여 지내는 것을 강조하다고 하였다.

설날 때의 전통 음식과 복식을 살펴보면, 한중 두 나라 사람들의 민족적 정체성

5) 정월 대보름날 전후, 등롱이나 초롱에 수수께끼 문제를 붙여 놓고 사람들에게 맞추게 하는 놀이다.

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정월 초하루가 되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 후,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조상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고, 같은 조상의 후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설음식 중 제일 중요한 음식인 떡국은 새해의 첫 음식으로 장수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편 중국인은 '단원(團圓, 가족이 흩어졌다가 다시 단란하게 모이다는 뜻)을 중시하는 민족이고 춘절 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공기와 젓가락을 차려 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설날이나 춘절 때 한국 사람들은 복식을 더 중시하고 신경을 쓴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설날에 꼭 한복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전통 복식이 있지만 춘절 때 꼭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옷이나 깨끗한 옷을 입으면 된다고 하였다.

민속놀이는 그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놀이 자체가 목적인 놀이,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 내기 놀이, 겨루기 놀이, 풍어를 기원하는 놀이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민속놀이를 거행한 것을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보다 설날에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겼다. 특히 윷놀이는 한국 세시풍속에서 민속놀이의 기능뿐만 아니라 민간신앙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중국 사람들은 한족의 경우 춘절에 용놀이(용춤)와 사자놀이(사자춤)를 공연하였다. 중국 소수민족들이 춘절에 거행하는 민속놀이는 보통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의 리듬을 부여하는 오락적인 놀이들이라고 하였다.

설날의 민간신앙을 보면, 유·불·도사상을 바탕으로 한 두 민족의 전통 풍속이 존재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먼저 한국에서 제액초복(除厄招福)을 근간으로 하는 민간신앙은 창시자, 교리, 조직체계, 보편성 등을 갖춘 종교와는 달리 자연발생적이며, 전윤리(前倫理)적이고 지역적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신적이며 주술적이고 현세이익적인 신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 사회에서는 조상숭배 사상보다는 도교의 천인합일사상이 더 강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한중 두 나라 전통풍속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하여 양국 사람들이 예전에 살았던 생활 모습을 다시 찾아 확인하였고 오늘날 점점 사라져가는 민족문화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지는 불필요한 사

상을 개선하고 사회에 대한 유익한 생활 지혜를 계승하여 더 보편화된 문화로 개발하고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의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통풍속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현대 한중사회에서 이러한 풍속의 계승과 변화의 요인들과 전통풍속 자체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비교할 때는 주로 설날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는데 연구 대상 지역적 범위가 좁고 근대 중국사회의 전통 풍속의 변화 등을 논의했을 때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한·중 세시풍속 비교 연구는 민속학적 차원에서 민요와 명절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왔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역사적·지리적·문화적으로 관련이 깊으며, 서로 간의 교류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빈번하기 때문에 민속학적 차원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한국과 중국의 세시풍속 가운데 명절 관련 언어 표현을 어휘와 관용표현 두 가지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1.3.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중 명절 관련 언어 표현 가운데 어휘, 사자성어, 속담 등을 수집하고 그러한 언어 표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두 5장으로 나누어 기술되는바,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필요성을 기술하고, 한·중 세시풍속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검토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선정하는 연구방법과 내용을 밝힌다.

2장에서는 한·중 세시풍속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의 목적에 맞는 명절의 유형을 정리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3장에서는 세시풍속의 유형을 살펴본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명절에 관한 언어 표현을 월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어휘 부분은 한국의 『한국 세시풍속 전자사전[전자 자료]』와 중국의 『중국대세시기 I,II』를 문헌자료로 선정하였고 명절 관련 어휘를 수집한 후 정리와 분석을 한다. 또한 사자성어 부분은 장기근

(2006)의 《사자성어대사전》과 《中國成語大辭典》, 《現代漢語辭典》을 문헌자료로 정하고 두 나라 설날 관련 사자성어의 양상을 제시한다. 속담 부분은 『우리말 속담 사전』과 『중국속어대사전』, 『헝후어 대전서』를 선정하여 두 나라의 속담 양상을 월별로 제시한다.

4장에서는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절에 관한 언어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기술하고자 한다.

2. 한·중 세시풍속의 유형 및 특징

2.1. 한·중 세시풍속의 유형

세시풍속은 세시(歲時), 세사(歲事), 월령(月令), 시령(時令) 등으로도 불리고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행해지면서 전승되는 관습적, 의례적인 생활 행위를 말한다(정상진 2004:147). 세시의 ‘세’는 일 년을 가리키고 ‘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시를 말한다. 따라서 세시풍속은 한 해 중 계절에 따라 치러지는 관습적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세시풍속은 철과 절기에 따라 행해진다. 집단적이면서 매년 반복되는 전통적이고 전승적인 행사이다. 대개 농경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농경의례의 성격을 내포한다. 고사, 점복, 금기, 무속, 부적 등의 민간 신앙을 비롯하여, 음식·복식·놀이·예술·농경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사실들이 복합되어 종합성을 띤 문화 현상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세시풍속의 특징은 보름을 중시한 만월세시가 구조적으로 파악된다. 각 달마다 보름은 곧 밝음의 상징이며 만월의 풍요주술을 한 해의 첫째 달에 기구하였던 것이다. 즉 미리 풍요를 간구한 것이다. 대표적인 명절은 한국의 정월대보름(1월 15일), 유두(6월 15일), 백중일(7월 15일), 추석(8월 15일)이 있고 중국의 원소절(1월 15일), 중원절(7월 15일), 중추절(8월 15일)이 있다. 그리고 음양사상(陰陽思想)에 따르면 대체로 양수는 좋은 숫자로 여기고 있으므로 양의 수가 겹치는 것을 길일로 보고 있다.¹⁾ 그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의 설날(1월 1일), 삼짇날(3월 3일), 단오절(5월 5일), 칠석(7월 7일)등이 있는데, 중국의 춘절(1월 1일), 龍抬頭(2월 2일), 상사절(3월 3일), 단오절(5월 5일), 칠석(7월 7일), 중양절(9월 9일)이 있다. 이러한 속절은 ‘양수’를 길수로 여기는 기수민속(奇數民俗)들이다.

예로부터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계절에 따라 특히 월별로 다양한 세시풍속을 가지고 있음이 특징인데, 두 나라 세시풍속의 차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홀수를 ‘양의 수’라고 하고, 짝수를 ‘음의 수’라고 하여 ‘양의 수’를 길수로 여겼다.

<표 1> 한국의 세시풍속(이명련 2006:4)

월	일	명칭	풍속 내용
정월	음1/1	설날	설날 아침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드린다. 세찬의 대표적인 음식인 떡국을 먹다.
	음1/15	정월 대보름	부럼, 귀밝이술, 오곡밥을 먹고 쥐불놀이를 한다.
2월	음2/1	머슴날	온 집안을 깨끗하게 쓸고 닦는 대청소를 하는 날(노래기 부적)이며, 풍신제, 콩볶이 등도 한다.
		영등제	영등신을 대상으로 하는 제사이다. 이월 초하루를 가리켜 영등할머리를 맞아들이는 날이라고 하여 영등날이라고도 하며, 이월 전체를 영등달이라고 한다.
3월	음3/3	삼짇날	삼월삼짇날'이라고도 하며, 한자어로는 상사(上巳)·원사(元巳)·중삼(重三), 또는 상제(上除)라고도 쓴다. 또, 답청절(踏青節)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 날 들판에 나가 꽃놀이를 하고 새 풀을 밟으며 봄을 즐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4월	양4/5-4/6	한식과 청명	조상의 산소에 성묘(차례)를 가며,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다.
	음4/8	초파일	석가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불가(佛家)에서 하던 축의행사(祝儀行事)이다. 가장 대표적인 풍속은 관등(觀燈)놀이이다.
5월	음5/5	단오	옛날에는 차례를 지냈다. 단오제를 지내며, 창포물에 머리감기, 그네뛰기, 씨름을 즐겼다.

6월		삼복(초복 중복 말복)	초복: 하지(夏至) 다음 세 번째 오는 경(庚)일이다.(양력7월 12일경-7월 22일경). 중복: 네 번째 오는 경일이다. 말복: 입추(立秋) 후 처음 오는 경일 더위를 이기기 위하여 삼계탕, 팔죽, 보신탕을 먹는다.
7월	음7/7	칠월칠석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다. 햇볕에 옷과 책을 내어 말리며 견우, 직녀 두 별을 보고 절하며 바느질솜씨가 늘기를 빈다.
	음7/15	백중 ²⁾	세벌김매기가 끝난 후 여름철 휴한기에 휴식을 취하는 날이다. 농민들의 여름철 축제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고,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으며 백중놀이를 한다.
8월	음8/15	추석	추석 전에 벌초를 하고 추석에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강강술래, 씨름, 줄다리를 한다(음식: 송편, 시루떡, 토란단자, 밤단자).
9월	음9/9	중양절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단풍놀이(가을소풍)와 풍국놀이 ³⁾ 를 한다(음식: 국화전, 화채).
10월		시제 성주제	10월은 상달이라 하여 조상에 대한 시제 및 고사, 성주제를 지내는데 그런 제례 행사는 감사와 안녕을 기원하는 풍속들이다. (시절음식: 신선로, 만두, 난로회, 연포탕, 강정.)
11월	양12/22일경	동지	아세(작은설)라고도 하였다. 팔죽을 먹으며 악귀를 제거한다 하여 팔죽 물을 대문간, 대문 판자에 뿌린다(시절음식: 냉면, 수정과, 동치미).

12월	12/31	그믐날	묵은 세배, 해지킴, 널뛰기를 하였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세찬(歲饌)이라 하여 마른 생선, 육포, 곶감, 사과, 배 등을 친척 친지들 사이에 주고 받는다. 그리고 그믐에는 연중 거래 관계를 청산하며, 각 가정에서는 새해 준비로 분주하다. 또 이날 밤에는 '해지킴(守歲)'이라 하여 집 안팎에 불을 밝히고, 남녀가 다 새벽이 될 때까지 자지 않고 밤을 새운다.
-----	-------	-----	--

<표 2> 중국의 세시풍속(陶立璠 1971:280)

월(음)	일	명칭	풍속내용
正月	1/1	춘절 또는 원단(元旦) 라고도 함	송구영신, 여러 가지 시합, 기도 활동을 진행한다.
	1/15	元宵節(上元, 燈節이라 고도 함)	여러 가지 시합과 등불구경을 진행한다.
二月	2/2	龍抬頭 (용이머리를 드는명절)	농사활동을 준비한다.
三月	3/3	상사절(上巳節)	踏青(푸른 풀을 밟는다)을 한다.
四月	양4/5-4/6	한식과 청명	청명 전날은 한식일로서 조상 묘에 성묘하고 교외에 나가 산보하며 즐긴다.

- 2) 백중(百中)의 이칭으로는 백중(百衆), 백중(百種), 백중절(百種節), 중원일(中元日), 망혼일(亡魂日) 등이 있다. 민간에서 백중이란 말로 통일되어 있다.
- 3) 풍국은 단풍과 국화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풍국놀이는 중앙절에 서울의 선비들은 계산(溪山)에서 시인·묵객들은 주식을 마련하여 황국(黃菊)을 술잔에 띄워 마시며 시를 읊거나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즐겼다.

	4/8	浴佛節	佛事활동을 진행한다.
五月	5/5	단오절(重五라고도 함)	粽子(주약)를 먹고 용선을 탄다.
六月		삼복 (초복, 중복, 말복)	초복: 하지(夏至) 다음 세 번째 오는 경(庚)일이다(양력 7월 12일경-7월 22일경). 중복: 네 번째 오는 경일이다. 말복: 입추(立秋) 후 처음 오는 경일. 더위를 이기기 위하여 삼계탕, 팔죽, 보신탕을 먹는다.
七月	7/7	7/7칠석(七夕)	여자들의 명절 雀橋에 모인다.
	7/15	중원절(中元節)	조상, 귀신에게 제를 지낸다.
八月	8/15	추석(中秋節)	은 가족이 모이는 날로서 월병을 먹고 달구경하고 풍작을 경축한다.
九月	9/9	중양절(重陽節, 重九라고도 함)	높은 곳에 오르고 국화를 감상한다.
十月	10/15	하원절(下元節)	제사하고 水官에게 근심을 덜어 주고 위험에서 구해 주는 것을 빈다.
十一月	양12/22일경	동지(冬至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혼돈자와 개고기를 먹는다.
十二月	12/8	납팔절(臘八節)	납팔죽을 먹는다.
	12/23	竈王節(부뚜막왕절 또는小年이라고 함)	부뚜막에 제사를 지낸다.
	12/31	제석(除夕,그믐날)	연말로서 밤을 새다.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시풍속의 가장 큰 문화적 특성은 자연성, 즉 자연의 시간적 순서[時序]이다.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는 농업 생산과 민중생활에 유리하도록 세시절기의 확립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의 시간적 순서에 순응하게끔 만들었으니 세시풍속은 사람들이 자연 시간적 순서에 적응하기 위해 행한 능동적인 문화 창조라고 할 수 있다(蕭放 2002:25). 그래서 세시풍속에는 농업 생산과 관련된 활동과 명절에 행해지는 다양한 행사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언어 표현에는 세시와 관련하여 세시의 풍물을 표현 대상으로 삼아 절기의 변화와 동·식물의 성장 면에서의 특징 등을 언급한 것이 많고, 농업과 관련한 세시풍속보다는 세시명절⁴⁾에 행해지는 풍속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로 이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시풍속 가운데 명절의 세시풍속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중 두 나라의 명절을 월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의 명절

월	일	명칭	풍속 내용
정월	음1/1	설날	설날 아침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드린다. 세찬의 대표적인 음식인 떡국을 먹는다.
	음1/15	정월 대보름	부럼, 귀밝이술, 오곡밥을 먹고 쥐불놀이를 한다.
4월	양4/5-4/6	한식과 청명	조상의 산소에 성묘(차례)를 가며,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다.
5월	음5/5	단오	옛날에는 차례를 지냈다. 단오제를 지내며, 창포물에 머리감기, 그네뛰기, 씨름을 즐겼다.

4) 세시풍속은 명절, 24절기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른 의례와 놀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 명절이라면 세시명절을 일컬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명절의 개념이 확대되어 세시풍속과 관련된 날은 세시명절이라는 용어로 구별할 필요마저 생겼다. 『고려사』에는 속절(俗節)로 나타나는데 이는 명절과 같은 의미이다.

7월	음7/7	칠월칠석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햇볕에 옷과 책을 내어 말리며 견우, 직녀 두 별을 보고 절하며 바느질솜씨가 늘기를 빈다.
8월	음8/15	추석	추석 전에 벌초를 하고 추석에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강강술래, 씨름, 줄다리기를 한다(음식: 송편, 시루떡, 토란단자, 밤단자).
9월	음9/9	중양절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단풍놀이(가을소풍)와 풍국놀이를 한다(음식: 국화전, 화채).
12월	12/31	그믐날	묵은세배, 해지킴, 널뛰기를 하였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세찬이라 하여 마른 생선, 육포, 꽃감, 사과, 배 등을 친척 친지들 사이에 주고받는다. 그리고 그믐에는 연중 거래 관계를 청산하며, 각 가정에서는 새해 준비로 분주하다. 또 이 날 밤에는 '해지킴'이라 하여 집 안팎에 불을 밝히고, 남녀가 다 새벽이 될 때까지 자지 않고 밤을 새운다.

<표 4> 중국의 명절

월(음)	일	명칭	풍속 내용
正月	1/1	춘절 또는 원단 (元旦) 이라고도 함.	송구영신, 여러 가지 시합, 기도 활동을 진행.
	1/15	元宵節(上元, 灯節이라고도 함)	여러 가지 시합과 관등행사를 진행.

四月	양4/5-4/6	한식과 청명	청명 전날은 한식일로서 조상의 묘에 성묘하고 교외에 나가 산보하며 즐긴다.
五月	5/5	단오절(重五라고도 함)	粽子を 먹고 용선을 탄다.
七月	7/7	7/7칠석(七夕)	여자들의 명절이며 雀橋에 모인다.
八月	8/15	추석(中秋節)	은 가족이 모이는 날로서 월병을 먹고 달구경하고 풍작을 경축한다.
九月	9/9	중양절(重陽節)	높은 곳에 오르고 국화를 감상.
十二月	12/31	제석(除夕,그믐날)	연말로서 밤을 샌다.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명절은 ‘좋은 날’ 이라는 의미로서 ‘가일(佳日)’, ‘가절(佳節)’, ‘절일(節日)’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을 세시풍속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는데, 중국의 ‘절일’과 ‘세시풍속’의 성격을 엄밀히 구분하자면, ‘절일’은 국가 기념일과 명절로 인위성이 존재하지만, 세시풍속은 전 국민적 성격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설, 단오, 추석 등의 큰 명절을 가리킨다. 특히 큰 명절은 정치, 경제, 생산, 생활, 종교 신앙, 문화예술, 사교, 민족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그 나라 사람들의 종교, 생산 활동, 사교 활동, 문화 오락 활동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도립번 2005:269). 이 날은 모두가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과 이완의 시간으로 명절날에 해당되는 음식과 풍속 등을 통해 동질감과 공동체 의식을 다시 느낀다. 즉, 명절은 모두가 휴식을 취하며 가족과 함께 명절에 맞는 놀이와 음식, 옷차림 등의 풍속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 의식과 동질감을 느끼는 즐거운 시간이다.

2.3. 세시풍속 언어의 특징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언어들은 몇 가지 공통적 특성들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자연 환경과 문화적 조건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사용하는 언어는 비록 달라도 그 언어적 성격들은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 두 나라의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유사한 시기에 세시풍속을 향유하면서 행사나 의례에 적합하게 쓰일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 언어는 각각 다르지만 그 언어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첫째, 세시풍속 언어는 예축적(豫祝的)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설날을 비롯한 명절에는 상대방에게 복을 비는 말을 건넌으로써 미리 축하하는 의미를 전달해 주게 된다. 이는 언어 속에 주술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언령사상(言靈思想)을 근거로 하고 있다(표인주 외 2008:149). 젊은이들이 연장자에게 복을 축원하는 인사를 하고, 어른들은 손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 너도 건강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경우는 주로 설날에 이루어지는 세시풍속 언어이지만, 다른 명절에도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나서 이와 유사한 예축의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간결하고 의례적인 언어에 불과한 것 같지만,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사람들은 이런 예축의 말이 가족과 이웃에 큰 힘을 주고 삶에 활력과 평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어 왔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언어는 갈수록 세력을 얻어 현대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둘째, 세시풍속 언어는 제의적(祭儀的)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세시풍속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적 기능이다.⁵⁾ 따라서 종교적 기원을 위주로 한 언어들이 이 시기에 다수 등장한다. 각종 점괘와 운수에 관한 말들이 오가는 것을 비롯하

5) 여기서 세시풍속은 그것이 수행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함께 지닌다고 하면서 그 기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세시풍속은 가택신앙, 공동체신앙 및 자연숭배, 곡령숭배, 조상숭배, 그리고 점복, 주술, 금기 등과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시풍속은 종교적 기능을 맡고 있다. 또한 명절날은 일상적으로 해 왔던 일을 멈추고 일상에 리듬감을 주며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한다는 점에서 휴식적 기능, 혈연적이며 지연적인 만남과 사교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능, 놀이와 예능이 펼쳐지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오락적 기능과 예술적 기능, 목욕재계나 청소를 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보건의적 기능, 그리고 자연스런 민속의 학습과 전승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속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김성식 외 2005:152).

여 탑을 돌면서 독경하는 기원이라든지 제사에 적합한 언어가 세시풍속과 함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또한 문자언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문에 높이 써 붙이는 풍습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의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입춘날에는 봄에 합당한 문자를 써서 문에다 붙인다.”고 했고, 한국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는 입춘에 관상감에서 붉은 물로 벽사문(辟邪文)을 써서 대궐로 올리면 그것을 문설주에 붙인다고 하였다.⁶⁾ 이것은 일종의 부적으로서 입춘, 단오 등 세시풍속일에 귀신을 물리칠 목적으로 썼던 글이었다. 제의적 언어는 세시풍속과 함께 대궐에서부터 민간의 집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셋째, 세시풍속 언어는 공동체적(共同體的) 특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공동으로 행하는 놀이나 행사를 통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데 이 언어가 동원되었다. 예를 들어 ‘강강술래’ 같은 민속놀이는 한국의 남쪽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추석 무렵에 펼쳐진다. 부녀자들이 밝은 달 아래서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이때 소리를 내어 부르는 노랫말이 곧 ‘강강술래’인데 짧은 후렴구이기 때문에 누구나 함께 부를 수 있다. 쉽게 표현하는 언어지만 이것은 공동체의 유대와 결속이라는 막대한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언어와 행위를 통해 역사적으로 침략자를 물리칠 수 있었으며, 농사에도 큰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한다.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 단순한 언어 이상의 능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세시풍속과 관련된 언어는 그 지시적 기능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평소의 언어와는 달리 예측적 특성으로 미래적 확신이 있는 축하를 보내기도 하며, 종교적인 제의적 특성이 있어 재앙을 막는 언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언어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명절 언어 표현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6) 『東國歲時記』, 正月 立春條.

3. 한·중 명절 관련 언어 표현의 양상

3.1. 어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휘’에 대해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낱말의 수효. 또는 낱말의 전체”로 뜻풀이를 하고 있다. 이는 어휘가 개별 단어나 낱말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어는 개별어 하나하나를 말하고, 어휘는 단어들의 체계적인 집합으로서 ‘단어들의 무리’라고 볼 수 있다(김기만 2000:62). 세시명절에 행해지는 세시의례에 대한 어휘는 명절의 이칭, 제사, 절식, 놀이, 유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두 언어에서 사용되는 명절 관련 어휘의 양상을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1. 한국 명절의 어휘 양상

한국의 명절은 설날부터 그믐날까지 8가지가 있다. 이러한 명절 가운데 설날과 그믐날은 서로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두 명절을 합쳐서 제시하기로 하겠다. 다음은 한국의 명절 관련 어휘를 하나의 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 5> 한국의 명절 관련 어휘 양상

월	일	명절	관련 어휘
정월	음1/1	설날	세배, 세주, 설주, 세찬, 세장, 세함, 세화, 설빔, 떡국, 차례, 제수, 산제, 문신, 설음식, 세뱃돈, 조왕신, 콩볶기, 포, 세밑, 제석, 제야, 제일, 세제, 세진, 수세, 나례, 망년주, 만뚝국, 동

			치미, 삼실과, 기년제, 기풍제, 묵은세배, 만두차레, 약태우기, 학질예방, 눈썹세는날, 연말대청소, 이갈이예방.
	음1/15	정월 대보름	상원, 동제, 복쌈, 찰밥, 약밥, 화적, 망월, 오곡밥, 오기일, 모깃불, 백가밥, 묵은나물, 귀밝이술, 부럼깨기, 줄다리기, 동채싸움, 놋다리밟기, 세성받이밥, 나무쇠싸움.
4월	양4/5-4/6	한식과 청명	한식, 숙식, 냉절, 묘제, 합문, 산신제, 기제사, 금연일.
5월	음5/5	단오	창포, 단양, 형초, 그네, 씨름, 쑥떡, 창포꽃, 창포물, 수릿날, 중오절, 천중절, 단오빔, 단오첩, 창포탕, 제오탕, 석전놀이, 단오절사, 단오고사, 창포비녀, 수리취떡, 앵두화채, 강릉단오제.
7월	음7/7	칠월칠석	견우, 직녀, 치성, 천계, 폭의, 폭서, 시암제, 시루떡, 오작교, 칠석제, 용왕제, 밀전병, 밀국수, 칠석놀이.
8월	음8/15	추석	오곡, 백주, 백과, 송편, 벌초, 성묘, 추수, 중추, 가배, 가신, 햅쌀밥, 가배일, 가위, 중추절, 소놀이, 토란국, 닭싸움, 한가위, 올베심리, 풋바심이, 강강술래, 가마싸움.
9월	음9/9	중양절	천제, 오락, 중사, 시제, 국화주, 국화전, 부조묘, 중양등고.

한국의 설날은 음력 1월 1일에 해당되며 ‘설’ 이나 ‘설날’ 로 일컫는다. 여기에 제시된 어휘에는 세밑, 눈썹세는날, 제석(除夕), 제야(除夜), 제일(除日), 세제(歲除), 세진(歲盡)이라도 부르는 한 해의 마지막 날, 즉 선달 그믐날도 포함하있음이 특징이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 일찍이 각 가정에서는 대청마루나 큰방에서 제사를 지내

는데, 제사상 뒤에는 병풍을 둘러치고 제사상에는 설음식을 갖추어 놓는다. 죽은 조상에 대한 차례가 끝나면 다음에는 살아 계신 어른들께 절을 올리는데 이를 일컬어 ‘세배’라고 한다. 아이들의 세배를 받은 어른은 절값으로 돈을 준다. 이를 ‘세뱃돈’이라고 한다. 또한 설날에 먹는 음식은 떡국이다.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고 한다. 설날의 음식을 통틀어 ‘설음식’ 또는 ‘세찬’이라 하고 설날의 술을 ‘설술’이라고 한다.

정월 대보름은 한국 세시풍속에서 비중이 크고 뜻이 깊은 날이기 때문에 ‘대보름’이라고 특별히 일컫는다. 이 날을 상원(上元)이라고도 한다. 대보름의 대표적인 행사인 동제는 지금까지도 대보름날을 주로 해서 여신지모신앙(女神地母信仰)을 주류로 하는 고행(古型)의 전통을 지속시켜 왔다. 정월 대보름날을 전후해서 찰밥과 약밥을 먹는 풍속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열나흘날 저녁 일찍 오곡밥을 먹는다. 전남에서도 열나흘날 저녁에 오곡밥이라고 해서 농사지은 곡식을 모두 섞어서 밥을 짓는다고 한다. 또한 대보름에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놀이들이 행해진다. 줄다리기는 편싸움의 대표 종목의 하나이고, 나무쇠싸움 등이 있다.

한식은 양력으로는 4월 5일 무렵이다. 민간에서는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이다. 금연일(禁烟日), 숙식(熟食), 냉절(冷節)이라고도 한다. 이 날에 조상 숭배와 관련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다. 집안에 따라서는 사당에서 조상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성묘를 하고 간단한 제사를 지낸다. 이때 서울 지역에서는 제사에 앞서 먼저 산신제를 지내기도 한다. 성묘의 대상은 기제사를 받는 조상도 있지만,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 먼 조상이나 후손이 없는 사람인 경우도 많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을 명절로 이르는 말이다. 단오의 단(端)은 첫 번째를 의미하고, 오(午)는 오(五), 곧 다섯과 뜻이 통하므로 단오는 초닷새를 말한다. 단오를 가리켜 중오절(重五節), 천중절(天中節), 단양(端陽)이라고도 한다. 단오는 형초(荊楚)⁷⁾의 풍속으로 전해져 온 것이다. 단오는 한국 민족만이 아니라 고대로 북방민족

7) 형초 문화(초 문화로 줄여 말하기도 함.)는 현재의 지리 및 행정구역상 호북성(湖北省)·호남성(湖南省)·강서성(江西省) 일대를 포괄하는 지역, 즉 대략 장강(長江) 중류 지역의 문화를 일컫는다. 형초 문화의 핵심은 무(巫)에 있다. 민간에서는 무속(巫俗)이 성행했고 귀신을 모셨으며,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무가(巫歌)를 불렀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적 기초를 바탕으로 초나라 방언과 초사(楚辭)가 나왔다. 굴원(屈原)과 같은 위대한 시인도 이 같은 문화 속에서 탄생했다. 굴원의 대표작인 「이소(離騷)」·「천문(天

들도 연중 최대 명절로 삼고, 금(金)나라 때는 이날 배천(拜天), 사류(射柳), 격구(擊毬) 등을 행하였다. 예로부터 단오에는 많은 의례가 행해졌다. 궁중에서는 신하들이 단오첩을 궁중에 올리고, 공조와 지방에서 부채를 만들어 진상하면 임금의 신하들에게 나누어준다. 단오를 맞아 새로 수확한 앵두를 천신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단오절사(端午節祀)를 지낸다. 또한 집안의 평안과 오곡의 풍년, 그리고 자손의 번창을 비는 단오고사(端午告祀)를 지내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군현 단위의 큰 단오제가 지역마다 행해졌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릉단오제이다. 조선시대에는 군현 단위의 큰 단오제가 지역마다 행해졌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릉단오제이다. 이렇게 창포탕에 머리와 얼굴을 씻고 새 옷을 입고 창포비녀로 치장하는 것을 단오장(端午粧)이라 한다.

칠석은 음력 7월 7일로 세시 명절의 하나이다. 헤어져 있던 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만나는 날이라고도 한다. 견우와 직녀는 칠석날이 되면 오작교를 건너 서로 그리던 입을 만나 일 년 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고 다시 헤어져야 한다. 칠석 다음날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를 보면 모두 벗겨져 있는데 그것은 오작교를 놓기 위해 머리에 돌을 이고 다녔기 때문이라 한다. 지역에 따라서 칠석제, 용왕제, 밭제 같은 제사를 지내고 사당에 천신(薦新)하며 밀국수, 밀전병, 호박도래전 등 시절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칠석음식으로 밀전병을 만들어 먹고 칠석놀이라 하여 술과 안주를 갖추어 가무로 밤이 깊도록 놀기도 한다.

추석은 음력 팔월 보름을 일컫는 말이다. 가배(嘉俳), 가배일(嘉俳日), 가위, 한가위, 중추(仲秋), 중추절(仲秋節), 중추가절(仲秋佳節)이라고도 한다. 설날의 명절식이 떡국인 반면 추석의 명절식은 송편이다. 추석은 애초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로서 이날 명절식으로 송편을 빚어 조상에게 올려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는 것이 중요한 행사한다. 추석에는 강강술래, 줄다리기, 가마싸움, 소놀이, 거북놀이, 소싸움, 닭싸움 같은 놀이를 한다.

중양절은 음력 9월 9일을 가리키는 날로 날짜와 달의 숫자가 같은 중일(重日) 명절의 하나이다. 중양절의 시제는 조선 후기 이후 특히 영남지방에서 부조묘(不祧

間)」·「구가(九歌)」 등에 천지산천, 신령, 괴물 등 환상적이고 신화적인 요소가 짙게 나타나 있는 것 역시 무속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중국문화답사기Ⅱ 2004).

廟)를 모신 집안들을 중심으로 행해져 왔다. 중앙절은 국화가 만발할 때이므로 국화주, 국화전을 만들어 먹는다.

3.1.2. 중국 명절의 어휘 양상

중국의 세시명절은 일반적으로 한 해라는 시간 내에 정해지는 제사, 오락 위주의 활동을 하는 특별한 날로서 기능상으로는 명절의 이칭, 제사, 절식, 놀이, 유래 등에 대해 제시하기로 하겠다. 중국의 세시명절은 음력으로 양상을 제시하기 때문에 춘절(春節) 관련 어휘 양상은 선달 그믐날 밤과 정월 초하루를 합쳐서 제시한다. 중국의 명절 관련 어휘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중국의 명절 관련 어휘 양상

월(음)	일	명칭	관련 어휘
正月	1/1	春節(춘절)	對聯(대련), 年畫(연화), 年飯(연반), 唐花(당화), 春聯(춘련), 門神(문신), 財神(재신), 鞭炮(편포) ⁸⁾ , 福字(복자), 搖錢樹(요전수), 紅票兒(홍표아), 辭歲(세수), 迎喜神(영희신), 竈王神(조왕신), 守歲酒(수세주), 年夜飯(연야반), 壓歲錢(압세전) ⁹⁾ , 春餅(춘병), 接神(접신), 太歲神(대세신), 點天燈(점천등), 煮餡餠(자발발).
	1/15	元宵節(上元, 燈節이라고도 함.)	燈市(등시), 燈節(등절), 逛燈(광등), 元宵(원소), 湯圓(탕원), 燈謎(등미), 商燈謎(상등미), 走橋兒(주교아), 放花盒(방화합), 土地神(토지신), 舞燈籠(무등용), 秧歌舞(앙가춤), 獅子舞(사자춤), 高蹺(나무다리).
四月	양4/5-4/6	한식과 청명	寒食(한식), 掃墓(소묘), 上墳(상분).

五月	5/5	단오절(重五라고도 함.)	龍舟(용주), 粽子(중자), 射柳(사류), 香包(향주머니), 艾草(애초), 艾糕(애고), 女兒節(녀아절), 雄黃酒(웅황주), 屈原(굴원), 五毒餅(오독병), 汨羅江(떡라강).
七月	7/7	7/7칠석(七夕)	織女(직녀), 鵲橋(오작교), 仙女(선녀), 牛郎(우랑), 王母(왕모), 丟針(침), 巧果(교과), 五生盆(오생분), 兒女節(아녀절), 碧蓮池(벽련지), 女星樓閣(직녀성누각).
八月	8/15	추석(中秋節)	元夕(원석), 元夜(원야), 元節(원절), 踏月(답월), 燈會(등회), 月餅(월병), 月壇(월단), 拜月壇(배월단), 拜月亭(배월정), 望月樓(망월루), 燈籠節(등용절), 團圓節(단원절), 八月節(팔월절), 團圓餅(단원병), 年畫馬鐙(연화마등), (금용비우).
九月	9/9	중양절(重陽節, 重九라고도 함.)	重陽登高(중양등고), 訪菊(방국), 賽馬(새마), 菊花酒(국화주), 登高節(등고절), 重陽花糕(중양화고).

- 8) 鞭炮(편포): 크고 작은 폭죽의 총칭으로 한 껍데기에 죽 썬 연발 폭죽 등 여러 모양이 있다. 이런 풍속은 대략 진대(진대 AD.3세기-5세기)때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폭죽을 터뜨리기 시작한 이유는 애초에는 귀신을 몰아내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보면 “정월 초하루 날, 닭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먼저 마당에서 폭죽을 터뜨려서 산조(山臊)라는 괴물과 악귀들을 쫓아 버린다”라는 지재가 있다(중국대세기Ⅱ 2006:396).
- 9) 壓歲錢(압세전): 보통 한 해가 갈 때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돈을 말하는데 한국의 세뱃돈과 비슷하다. 중국어에서 ‘세(歲)’의 음이 ‘나쁜 질병’이라는 뜻의 ‘수(祟)’와 같기 때문에 한 해의 나쁜 것들을 다 누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에서 붉은 색의 실로 동전을 꿰어 어린 아이의 가슴에 걸어 준다. 상다리에 걸어두는 경우도 그 숫자는 아이들의 숫자와 똑같다. 압세전이라는 명칭 말고도 허리에 걸어 주기도 한다는 뜻에서 ‘압요전(壓腰錢)’이라 하기도 하고 압수전, 압세전 등의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중국대세기Ⅱ 2006:400).

중국의 춘절은 원단이라도 하고 그 해를 관장하는 태세신(太歲神)¹⁰을 영접하는 행사로서 폭죽 터뜨리기, 자발밭이라는 음식으로 점치는 풍속을 지낸다. 이 날은 가가호호 부엌신을 새로 붙이고 이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데, 부엌신의 초상화에다 사탕이나 엿을 발라 놓는다. 제석에는 춘련이라는 두 장의 종이에 서로 대칭되는 문장을 써서 대문 양쪽에 붙는다. 한국처럼 중국 사람들도 정월 초하루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마다 새 옷을 갈아입고 조상께 제사를 지낸다. 중국 춘절의 음식은 ‘교자’라고 한다.

음력으로 정월 15일은 중국의 전통적인 명절인 원소절이며 전반 춘절의 마지막이기도 한다. 원소절은 원석, 원야, 원절이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대보름날에 오색찬란한 등롱에 수수께끼를 붙여놓고 풀기 놀이를 한다. 원소절에 원소를 먹는 것은 전통적인 관습이다. 원소절에는 등불을 구경하고 탕원을 먹는 것 외에 많은 문화와 오락 활동이 파생되었는데 나무다리, 양가(秧歌)춤, 사자춤 등이 그것이다.

청명절은 음력 4월 5일 전후에 해당된다. 이 날의 외출은 조상의 묘를 참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동시에 자연스레 푸릇푸릇한 야산에 돌아나는 풀을 밟는 상큼한 봄 소풍의 의미도 갖는다.

중국에서 음력 5월 5일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유의 세시명절 중의 하나이다. 용주경기를 진행하는 것도 단오의 중요한 풍속 중 하나이다. 이 풍속은 굴원 관련된다고 한다. 홍콩 등의 남방지역에서는 종자를 먹고 용주경기를 거행하는 것 외에도 尋黃酒(웅황주) 마시기, 향주머니 걸기, 菖蒲(창포) 꽃기, 艾草(쑤) 걸이 놓기 등을 하며 악귀를 쫓고 건강을 기원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다.

7월 7일은 칠석이라 한다. 이 날은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라고 한다. 견우, 직녀성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야 비로소 정식으로 직녀성에게 재간이 있게 해 달라고 빈다.

중국에서 추석은 중추절이라 부른다. 가을의 밝고 맑은 달빛을 띠는 둥근 달이 단결과 화목의 상징이라 여겼기 때문에 단원절이라고도 불렀다. 중국 여러 지방에는 아직도 많은 ‘배월단’, ‘배월정’, ‘망월루’의 유적이 있다. 그리고 중추절에는 중국

10) 음양가(陰陽家)에서 만드는 여덟 장신의 하나. 목성에게 붙인 이름. 해마다 간지(干支)의 방향(方向)으로 운행(運行)하는데, 이 신의 방향으로 향하여 갈사를 행하면 복을 얻는다 한다(한자 사전 전자판).

각지에서 대규모의 경축 행사도 벌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회(燈會)이다. 중추등회로는 판용채등, 상아가 달나라 간다, 각양각색의 채색등, 연화마등, 금용비우, 등용전과 같은 행사들이 있다. 중국의 중추음식은 월병이다.¹¹⁾

9월 9일은 중양절이고 또 다른 말로登高節(登高節)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예로부터 중양절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양절에는 국화를 감상하고 국화주를 마시는 풍습이 있었다.

3.2. 관용표현

관용표현은 관용어, 관용구, 관용절, 이디엄, 속어, 익힘말, 익은말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접근되어 왔다(심지연 2009:76). 그러나 민현식(2003)¹²⁾은 ‘관용표현’이라는 정의에 설화와 유행담과 같은 이야기 형식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를 넓혔다. 모든 속담뿐만 아니라 단위까지 관용표현을 확장시켜 그 의미를 정의하였다. 본고에서도 역시 관용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관용어라는 말에서는 ‘합성어’나 ‘파생어’와 같은 단어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관용구는 말 그대로 ‘구’이기 때문에 문장의 단위까지는 넘어설 수 없다. 최소한 문장이라 할 수 있는 ‘절’이 되려면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하는데, ‘구’는 두 단어 이상의 말이지 ‘절’이 되지 않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담이나 이야기에서도 관용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들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장과 이야기의 개념까지 포괄하기 위해서는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관용표현으로서의 성어와 속담을 다루되, 명절 세시풍속과 관련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11) 중추절에 월병을 먹는 전통은 원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주원장(朱元璋)은 한족을 거느리고 원나라의 폭정을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켰는데 8월 15일에 일제히 거사하기로 약속하고 월병 속에 소식을 담은 쪽지를 넣어 선물을 하듯 월진병을 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 후 주원장은 원나라를 무너트리니 명나라의 첫 황제가 되었는데 훗날 만족(滿族)이 중국에 들어와 청나라를 세웠을 때에도 사람들은 오랑캐로부터 통치권을 되찾았던 이 명절을 계속 경축하였다고 한다(장범성 1999:260).

12) 민현식(2003:7)에서 관용표현은 일정 시간 반복적, 지속적으로 언어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속담이나 표어, 고전설화나 유행담 등을 포괄한다고 했다.

3.2.1. 한·중 명절 관련 성어의 양상

성어란 장기간의 언어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진 고정된 표현 형태로서 특정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굳어진 결합체를 말한다(崔希亮 1997:80). 즉 성어란 적어도 4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구조화되고 의미화된 구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4음절 혹은 4음절 이상의 조합을 말한다(曹煒 2004:159). 중국어의 성어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성어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 글자로 함축하였기에 담고 있는 뜻이 아주 크다. 하나의 성어를 알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지식도 알게 된다.

성어를 이르는 명칭으로는 ‘한자성어, 고사성어, 사자성어’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자를 가지고 만들어진 어휘를 한자성어라고 하고 그중에서는 90% 이상이 네 글자로 이루어진 형식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 다루려는 것은 한·중 명절에 관한 사자성어와 고사성어이다. 사자성어의 경우 어느 정도는 한자의 뜻만 가지고도 전체적인 의미 파악이 가능하지만 고사성어는 그렇지 않다. 고사성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글자 그대로의 표면적 의미는 물론, 그에 유래된 고사의 내력이나 비유적인 속뜻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 세시풍속 관련된 사자성어는 주로 명절 때 길상어로 쓰는 사자성어와 명절 역사적인 이야기에 대한 설명할 때 쓰는 고사성어이다. 본 절에서는 장기근(2006) 《사자성어대사전》과 중국의 《中國成語大辭典》, 《現代漢語辭典》¹³⁾등을 참고 자료로 삼았다.

3.2.2.1. 한·중 명절의 사자성어 양상

전통 문화면에서 설날은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 세시풍속 면에서도 가장 많은 세시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세시풍속 가운데 설날은 경축 활동에 대해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본 절에서 주로 설날 관련된 성어를 살펴볼 것

13)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編(2008), 《現代漢語辭典》, 商務印書館.

1978. 초판. 매년 150만 부 이상이 발행되고, 2005년까지 제 5판 발행되었으며, 2008년 6월 북경에서 제 335 차례 인쇄됨.

이다. 설날은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명절은 ‘좋은 날’이라는 의미로서 경축하는 관용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먼저 설날과 관련된 상용 사자성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한국의 명절 관련 사자성어 양상

사 자 성 어	해 석
공하신년 (恭賀新年)	삼가 새해를 축하하다.
근하신년 (謹賀新年)	삼가 새해를 축하하다.
송구영신 (送舊迎新)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다.
제구포신 (除舊布新)	낡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내다.
운수대통 (運數大通)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천운과 기수가 크게 트여 이루어지다.
만수무강 (萬壽無疆)	아무 병 없이 오래오래 살다.
만사형통 (萬事亨通)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다.
강구연월 (康衢煙月)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을 이른다.
일취월장 (日就月將)	날로 달로 발전하거나 성장하다.
시화연풍 (時和年豐)	나라가 태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

<표 8> 중국의 명절 관련 사자성어 양상(1)

사 자 성 어	해 석
恭賀新禧 (공하신희)	삼가 새해에 행복하기를 축하하다.
恭賀新春 (공하신훈)	신년을 축하하다.
花開富貴 (화개부귀)	원만하고 행복한 생활을 원하다.

國泰民安 (국태민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평안하다.
紫氣東來 (자기동래)	상서로운 기운이 동쪽에서 오다. ¹⁴⁾
恭禧發財 (공희발재)	돈 많이 벌다.
新年快樂 (신년쾌락)	새해 복 많이 받다.
官運亨通 (관운형통)	관운이 형통하다.
萬事如意 (만사여의)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다.
合家歡樂 (합가환락)	온 가족이 즐거우시기 바라다.
合家團圓 (합가단원)	온 가족이 단란하게 지내기 바라다.
年年有餘 (연년유여)	해마다 부유하길 바라다.
大吉大利 (대길대리)	운수대통이다.
百事大吉 (백사대길)	백사가 형통하다.
三陽開泰 (삼양개태)	길하고 흥성하기를 바라다.
吉祥如意 (갈상여의)	복스럽고 상서로운 일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기 바라다.
辭舊迎新 (사구영신)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맞아들이다.
學業有成 (학업유성)	학문이 완성되다.
事業有成 (사업유성)	사업이 성공하다.
心想事成 (심상사성)	마음이 절실하면 이루어지다.

위의 표에서 제시한 성어는 중국 설날에 자주 쓰이는 길상 사자성어이다. 설날 음식은 항상 길상어와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석에 생선요리를 먹는 것을 ‘魚(yu)’의 발음이 매년 풍족하기를 바란다는 ‘年年有餘’의 ‘餘(yu)’와 같기 때문이다. 또 남방지역가운데는 ‘肉丸’과 ‘魚丸’을 먹는곳도 있는데, ‘丸’과 ‘圓’은 모양이 비슷하고 ‘合家團圓’, 즉 온 가족이 단란하게 지내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이다. 설날의 경축활동에도 길상한 사자성어가 자주 사용된다. ‘공희발재’, ‘관운형

14) 성인(聖人)이 음을 이르는 말이고 ‘벗이 움’에도 쓴다. 노자(老子)의 옛일에서 온다는 말이다(《中國成語大辭典》참조.).

통’, ‘만사여의’등 의 사자성어로 인사를 한다.

또한 한국에서 입춘 날 대문이나 대권 기둥 등에 붙이는 글을 궁중에서는 춘첩자(春帖字)라고 했고, 민간에서는 춘축(春祝)이라고 했다. 위에 제시된 사자성어를 두 개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춘첩자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ㄱ. 국태민안(國泰民安) 가급인족(家給人足) -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고, 가정에서는 집안 살림이 부족함이 없다.

ㄴ. 문신호령(門神戶靈) 가급불상(呵噤不祥) - 문의 신과 집안의 신령이 지키고 있으니 불길한 것을 꾸짖어 금하다.

ㄷ. 우순풍조(雨順風調) 시화연풍(時和年豐) - 비가 순조롭고 바람이 고르며 시절이 화평하고 풍년이 든다.

ㄹ.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 입춘에는 크게 좋은 일이 있고, 따스한 기운이 감도니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나타난다.

중국에서 춘련(春聯)¹⁵⁾은 각종 대련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음력설 기간에는 붉은 춘련들이 가가호호마다 붙여져 있는데, 그럼으로써 전통적인 명절의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더욱 더 강하게 만든다. 춘련의 종류도 비교적 많은데, 주로 사용 장소에 따라서 광대(框對), 횡비(橫批), 춘조(春條), 두방(斗方)¹⁶⁾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춘련의 횡비를 주로 사자성어를 쓰이고 있고 다음 예들은 거의 모두 춘련 횡비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사자성어이다.

15) 춘련의 기본 형식은 두 문장이 내용과 글자 수가 서로 대칭되는 대련(對聯)이다. 이러한 형태는 중국 문학의 독특한 형식에서 나온 것이다. 즉 선진(先秦)시대의 시문(詩文)이나 한(漢)나라 때의 한부(漢賦) 이후 위진남북조시대 때 유행하였던 병려체(駢儷體)의 문장 등은 모두 문장의 대칭을 중요시하였다(중국 풍속대사전 전자판 참조).

16) 광대(框對): 좌우 문대에 붙임.
횡비(橫批): 문미의 횡목에 붙임.
춘조(春條): 내용에 따라 적절한 곳에 붙임.
두방(斗方): 정사각형, 즉 가구 등에 많이 붙임.

<표 9> 중국의 명절 관련 사자성어 양상(2)

사 자 성 어	해 석
萬象更新 (만상경신)	만물이 더욱 새롭다.
春滿人間 (춘만인간)	생기발랄하게 봄기운이 가득하다.
和氣生財 (화기생재)	온화하게 사람을 대하면 재운이 생긴다.
福星高照 (복성고조)	복성이 높이 비치다.
豐衣足食 (풍의족식)	먹고 입을 것이 충분하고 살림이 풍부하다.
大地回春 (대지회춘)	겨울 떠나가고 봄을 맞으며 대지에서 생기발랄하다.
人壽年豐 (인수년풍)	평안하고 창성하다.
風調雨順 (풍조우순)	비와 바람이 농사짓기에 딱 알맞다.
家運亨通 (가운형통)	부자가 되는 운이 좋고 돈을 잘 벌다.
太平盛世 (태평성세)	안정 창성한 시대이다.
金玉滿堂 (김옥만당)	재산과 학식이 아주 많다.
財源廣進 (재원광진)	사면팔방 재부를 들어온다.
四季平安 (사계평안)	사계절에 평안하다.

3.2.2.2. 한·중 명절의 고사성어 양상

고사성어는 옛날의 어떤 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성어이고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전통이 반영된 특유의 습관적 표현이라도 할 수 있다. 이처럼 고사성어는 주로 중국의 명절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 ㄱ. 熬年守歲 (오년수세)

ㄴ. 三節兩壽 (삼절량수)

- ㄷ. 懸燈結彩 (현등결채)
- ㄹ. 張燈結綵 (장등결채)
- ㄱ. 明日黃花 (명일황화)
- ㄴ. 屈志從速 (굴지종속)

예(2ㄱ)의 ‘오년수세’ 중에 ‘수세’는 선날 그믐날 밤에 지나간 해를 지키다 하여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 새해를 기다리는 풍습이다. 제석수세라고 하고 민간에서는 ‘오년(熬年)’라고도 한다. 이에 중국의 ‘년’과 관련 전설이 있기 때문이다. (2ㄱ)의 ‘명일황화’ 중에 ‘황화’는 국화이다. 원래 중양절(重陽節)이 지난 후에 점점 시들어 떨어진 국화를 가리키고 사물이 제 시기를 지난 것을 가리키는 뜻도 있다. 송(宋)나라 시인 소식(蘇軾)의 작품은 《九日次韻王鞏》 중에 “相逢不用忙歸去, 明日黃花蝶也愁.”이라는 시문이 있고 ‘明日黃花’를 그 시문에서 유래했다. (2ㄴ)의 ‘굴지종속’은 중국의 전국 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의 유명한 시인 굴원을 기념하기 위한 종자를 먹는 풍습을 가리킨다.

3.2.3. 한·중 명절 관련 속담의 양상

한국의 속담이란 글자 그대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응축되어 나온 토속적인 표현의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속담은 옛날부터 민중의 지혜와 민족 사회의 경험이 응축되어 널리 구전되는 지식과 이치를 반영하며 한 민족, 한 문화, 한 사회의 정신적 사고방식과 물질적 생활 방식 등의 특징적인 면을 집단적으로 표현한 간결한 관용어라고 말할 수 있다(조용 2009:10). 속담에는 사회현상을 반영한 속담도 있고 자연현상을 반영한 속담도 있는바, 그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속담들이 깊은 생활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에 매우 큰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 속담의 개념에 대응되는 중국 속담이라 함은 혈후어¹⁷⁾, 관용어, 격언 그리

17) 중국의 속어는 언어, 성어, 관용어, 혈후어 등으로 나눈다. 그중에서는 혈후어의 형식이 가장 독특하고, 표현은 새롭고, 내용은 유머러스하다. 속담과 같은 속어 형식은 세계적으로 많은 어중에 가지고 있지만 혈후어의 형식은 중국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혈후어는 중국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특색이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不同時期(부동시기), 不同地域(부동지역), 不同業種(부동업종)의 漢民族

고 일부 성어까지 모두 포함된다. 속담은 넓은 의미로 오랜 시간 동안 일반 대중들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경험들이 쌓여 형성되는 통속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언어이다(조용 2009:12). 본 절에서는 한국의 속담과 중국의 헝후어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3.2.3.1. 한국 명절의 속담의 양상

1) 설날과 관련된 속담

한국의 설날은 음력 1월 1일에 해당되며, ‘설’이나 ‘설날’로 일컫는다. 설이란 1년의 첫머리란 뜻이고 설날은 그중에서도 첫날이란 의미를 지닌다. 다음으로 설날과 관련된 속담을 제시한다.

(3) 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

(객지에 나간 사람은 설에 부득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보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는 뜻.)

설은 새해가 시작하는 때이므로 출타를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조상에게 예(禮)를 다하고 이웃에게 인사를 다녀야 한다. 부득이 설을 집에서 설 수 없었다면 정월 대보름에라도 집에 돌아가야 한다. 설에는 사정이 있어서 집에 못 갔지만 보름 정도 여유를 가지면 그 사정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은 일년 중 농사 풍년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름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농사짓기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보름까지 집에 가서 생계(生計)요, 생존(生存)을 해결할 농사짓기를 준비해야 한다.

(한민족) 사람이 참조한 것이다. 그리하여 헝후어는 時代性(시대성), 地域性(지역성), 行業性(행업성)을 가진 특성이 있다. 헝후어는 수많은 대중들이 일상생활에서 비롯되어 창조한 간결한 문장이다(육신 1996: 52).

(4) 설날에 움 오르듯.

(한 해의 첫날인 설날에 몹시 가렵고 살이 짓무르는 피부병이 오르는 것처럼 일을 시작할 때부터 재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뜻.)

설날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삼가고 조심하여 재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할 때 주로 쓰인다. 일을 시작할 때부터 재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을 빗대어 말할 때도 쓰인다.

(5) 보리누름까지 세배한다.

(세배는 정초에 하는 것이 상례인데, 보리가 누렇게 익는 철, 즉 4~5월까지도 세배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지나침을 이르는 뜻.)

(6) 처갓집 세배는 미나리강회 먹을 때나 간다.

(사돈 사이에는 것처럼 예의를 잘 갖추었지만, 사위의 처갓집 세배는 꾸물대기 일쑤였던 모양이라는 뜻.)

설날에 행하는 풍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친족과 웃어른들께 올리는 세배(歲拜)이다. 설빔을 차려 입고 어른께 큰절을 올리면서 축원을 드리면, 어른도 예를 갖추어 푸근한 덕담을 들려주는 것이다. 과거에는 설날에 즈음하여, 사돈 사이의 부인들이 새해 문안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하녀를 서로 보내는 풍습을 행하기도 하였다. 이때의 하녀를 특별히 문안비(問安婢)라 칭하였는데, 조선조 영조 때의 학자인 이광려(李匡呂)의 시에 “뉘 집의 문안비가 뉘 집으로 문안하러 들어가는고(誰家問安婢 問安入誰家)”라는 구절도 보인다.

사돈 사이에는 것처럼 예의를 잘 갖추었지만, 사위의 처갓집 세배는 꾸물대기 일쑤였던 모양인지 “처갓집 세배는 미나리강회 먹을 때나 간다.”는 속담이 전한다. 백년손님으로 맞아주는 처갓집의 입장과는 달리, 은근히 처갓집을 챙기지 않는 사위들의 경향을 나무라기 위해 생긴 말인 듯하다. 식물로 만든 회라고 할 수 있는 미

나리강회는 겨울을 지낸 봄철의 미나리로 만들 때에 제 맛을 내는데, 임금님이 즐겨 드시거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고급 메뉴였다. 꽃피는 봄이 되어서야, 세배한 답시고 미나리강회를 먹으러 처갓집에 가는 사위가 껍 알미울 만도 하다.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처갓집 세배는 앵두꽃을 꺾어 갖고 간다’는 말도 있다. 장모의 미나리강회 맛을 보러 가는 알미운 사위로 보이기도 하지만, 본가에서의 행사가 많은 탓에 처갓집 세배는 대개 느긋하게 간다는 풍습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기로 앵두꽃이 필 시절에 처갓집 세배를 갔다가는, 오늘날의 사위들은 아마도 일 년 내내 구박을 당할 지도 모를 일이다. 이 평등의 시대에 말이다(국립민속박물관 2004:설).

(7) 꿩 대신 닭

(적당한 것이 없을 경우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뜻.)

최남선(崔南善)은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인 만큼 이 날을 아무 탈 없이 지내야 1년 365일이 평탄하다고 하여 지극히 조심하면서 가만히 들어앉는 날이란 뜻에서 설날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설날을 설명하였다. 설날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엄숙과 순수에 있다. 깨끗한 자세로 근신(勤愼)의 마음가짐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설날을 지내는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음식에도 순수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담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흰떡국¹⁸⁾이다.

(8) 남의 떡에 설 쉰다.

(남의 떡을 얻어 설을 쉰다는 속담. 남의 힘으로 일을 이룬다는 뜻.)

18) 흰떡국은 뽕쌈가루로 만든 가래떡을 썰어서 육수에 끓여 만든다. 설날의 떡국은 차찬상이나 세찬상에 올려지며, 모두가 그것을 한 그릇씩 먹음으로써 비로소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실감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날의 떡국을 가리켜, 나이를 더하는 떡이란 의미로 흔히 첨세병(添歲餅)이라고도 하였다. 원래 떡국의 육수로는 소고기나 꿩고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값이 비싼 소고기나 구하기 어려운 꿩고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닭고기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꿩 대신 닭’이라는 유명한 속담은 주로 적당한 것이 없을 경우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사실 이 말에는 가난했던, 그러나 소박했던 우리네의 설날 풍경이 아릿하게 배어 있는 것이다(『한국 세시풍속 사진: 정월편』 참조).

자기의 노력이나 경제적 부담 없이 남의 덕을 보려는 사람을 꼬집을 때 쓰이며 비슷한 속담에 “남의 불에 게 잡는다.”, “남 켜 헛불에 조개 잡듯.”, “남이 켜 불에 게 잡기.”, “남의 바지 입고 새 बे기.”, “남의 팔매에 밤 줍기.”, “지나는 불에 밥 익히기.” 등이 있다. 조선 순조 20년(1820)에 정약용(丁若鏞)이 엮은 『이담속찬(耳談續纂)』에는 “다른 사람의 떡으로 설[歲始]을 즐기다(他人之餌聊樂歲始).”라고 적혀 있다.

(9) 정월 초하룻날 먹어보면 이월 초하룻날 또 먹으려 한다.

(한번 재미를 보면 자꾸 하려고 한다는 뜻.)

정월 초하룻날은 큰 명절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즐거운 날이다. 그런데 2월 초하룻날도 명절인 줄 알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하니 이것은 시기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리석고 철없는 사람을 해학적으로 비꼰 때 주로 쓰이며 비슷한 속담으로 “초하룻날 먹어 보면 열하룻날 또 간다.”가 있다.

(10) 설에도 부모를 모르다니.

(새해 설을 맞으면 객지에 나간 자식은 집에 돌아와서 부모를 모시고 뜻 깊게 지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식은 실로 불효막심하다는 뜻.)

객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명절, 그중에도 새해가 시작되는 설 명절을 집에서 쇠려고 한다. 특히, 나이든 부모가 집에 계시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를 모시고 가족과 어울려 즐겁게 지낸다. 그리고 조상에게 차례(茶禮)를 올리고 사당(祠堂)을 참배하며 성묘(省墓)도 한다. 부모들은 객지에 나간 자녀들과 함께 설날 보내기를 고대하고 아이들은 집에 돌아오는 아버지가 선물과 설빔 사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내들은 설날 먹을 음식을 장만할 돈과 빗 값을 돈을 벌어오기를 고대한다. 이것은 집안사람이든 집 밖 사람이든 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설날 집에 못 가는 심정이나 집에서 객지의 식구들을 그리워하

는 식구들도 고통이다. 가능하면 설날 등의 명절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 민족의 풍습이었다. 오늘날 설에 교통 사정이 매우 나쁜데도 귀성(歸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바로 그 증거다.

(11) 설은 질어야 풍년이요 보름은 맑아야 풍년이다.

(설에는 눈이 많이 내려야 그해에 풍년이 들고, 정월 대보름에는 맑아서 보름달을 볼 수 있어야 그해에 풍년이 든다는 뜻.)

새해의 첫 날인 설날에 상서롭게 여기는 눈이 내리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쌓인 눈이 온 땅을 덮어 보리싹을 비롯한 농작물이 얼어 죽지 않게 보호해 주니 풍년이 들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새해 첫 만월(滿月)이 뜨는 정월 대보름에 날씨가 맑아 보름달을 볼 수 있으면 그해에 풍년이 들 것이라 믿었다. 이것은 달이 생생력(生生力)을 지니고 있어서 풍요(豐饒)를 가져다 준다는 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정월 대보름날 달이 뜰 때 달의 모양, 크고 작음, 출렁거림, 높낮이, 달빛을 보고 그해 농사의 풍흉(豐凶)을 점치거나 정월 대보름달에 축원을 하면 소원을 성취한다는 민속은 이런 의식에서 생긴 것이다. 비슷한 속담으로 “정월 보름날 맑으면 풍년 든다.”, “정월 보름달이 누르면 대풍이 든다.”가 있다.

(12) 설에는 옷을 입고 한가위에는 먹을 것을 얻어먹는다.

(비교적 한가하고 겨울철인 설에는 좋은 옷을 해 입고 추수철인 추석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여 먹을 것을 많이 얻어먹게 된다는 뜻.)

(13) 설은 질어야 좋고 추석은 맑아야 좋다.

(음력설에 눈이 자주 오면 보리농사에 좋고 추석 때는 벼의 등세기이므로 맑은 날이 많아야 일조시간이 많고 적산 온도가 높아 결실이 좋아 풍년이 든다는 뜻.)

(14) 설을 거꾸로 썼다.

[동지선달보다 해동(解凍) 무렵이 더 춥다는 뜻.]

음력 1월 1일인 설은 1월에 들어섰으니 봄이라고 보고, 절후(節候)로 보아서도 설은 양력으로 2월 초순, 입춘(立春) 무렵이므로 봄에 들어섰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추운 겨울이다. 엇그제 겨울인 선달그믐이 하루 이틀 지났다고 별안간 봄이 되어 날씨가 풀릴 턱은 없지만, 어서 봄이 오기를 바라는 성급한 사람에게는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와서 계절이 바뀌었으니 봄인데 왜 이렇게 추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춥게 느낀다. 새벽에 날이 새기 직전이 더 어둡다는 말과 상통한다. 기대한 만큼 날씨가 풀리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더 춥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15) 선달 그믐날 개밥 퍼 주듯.

(결혼 적령기를 넘긴 여자가 핫김에 개밥을 푹푹 퍼 준다는 뜻으로, 무엇을 너무 많이 헤프게 퍼 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뜻.)

선달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다. 그래서 묵은 바느질을 하거나 또는 그해 일의 끝단속을 하기도 하고 묵은 빚을 남김없이 청산하기도 한다. 선달이 한 해의 끝인 데서 이 속담이 생겨났다. 이 말은 시집을 못 가고 해를 넘기게 된 노처녀가 초조감과 핫김에 개밥을 푹푹 퍼 준다는 뜻으로 쓰인다. 더러는 선달그믐 날은 먹을 것이 많아서 개밥도 후하게 주듯이 남에게 음식을 후하게 준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16) 선달 그믐날 시루 얻으러 가다니[다니기].

(어느 집이나 다 시루를 쓰는 선달 그믐날에 남의 집에 시루를 얻으러 다닌다는 뜻으로, 되지도 않을 일에 애를 쓰는 미련한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뜻.)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든지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남에게 폐가 되거나 손해를 끼치는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무슨 일이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임박해서 당황하는 일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뜻이다.

시루에 대한 속담은 여러 개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시루에 물 퍼붓기다”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는 일은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욕심만은 만족시킬 수 없다는 뜻으로 “시루에 물은 채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라는 말이 있다. 또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제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시루 안 떡도 먹어야 먹는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17) 선달 그믐날 흰떡 맞듯.

(선달 그믐날에 흰떡이 떡메에 맞는다는 뜻.)몹시 두들겨 맞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등줄기에서 노린내가 나게 두들긴다·복날(에) 개 맞듯.

충남 공주 지역 민요로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다. “똥 누다가 감투 잃고 도랑 건너 뛰엄 뛰다 고드래상투 마자 잃고 부애김에 술집 가니 술값 내라 이쪽 저쪽 선달그믐 흰떡 치듯 뺨만 실컷 두들겨 맞고…….” 외상 빛이 많았던 술집에 선달그믐에 갔으니, 외상값 내놓으라는 성화에 뺨만 실컷 맞았다는 내용이다.

또 『춘향전』에는 “여북하오면 굶고 다닐 적이 만삼고 그러하옵기 변지변(별리에 변리) 이지이(이익에 대하여 또 생기는 이익)하여 주는 경주인의 빛이 무수하옵고 환자도 매양 바칠 길이 없사와 불기를 선달그믐날 흰떡 맞듯 하옵니이다.”라는 대목이 있다. 몹시 가난하여 환자(還子)도 갚을 길이 없어 선달그믐날 흰떡 맞듯 하였다는 대목이다. 이 같은 사정은 옛날 가난한 농민에게는 많았다.

(18) 선달에 들어온 머슴이 주인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머슴이 주제넘게 주인집 일을 걱정한다는 뜻으로,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를 비꼬는 말.)

(19) 선달이 둘[열아홉]이라도 시원치 않다.

(선달이 아무리 많아도 모자란다는 뜻으로, 시일을 아무리 늦추어도 일의 성공을 기약하기 어려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달로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제일(除日)에는 남은 빛을 청산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날까지 받지 못한 빛은 정월 보름까지는 독촉도 하지 않고 갚지도 않는 것이 관례였다. 한편 이날 시집 못한 노처녀는 개밥을 푹푹 퍼준다고 한다. 처녀가 시집을 가지 못하고 해를 다 보내고 나니 화감에 개밥을 많이 퍼준다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선달인데, 이러한 선달이 열아홉이라도 시원치 않다는 이 속담은 마무리의 말미를 열아홉 번 주어도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니 성사(成事)될 수 없음을 강조한 말이다.

2) 정월 대보름과 관련된 속담

(20) 정월 대보름날 귀머거리장군 연 떠나가듯.

(멀리 가서 떨어지는 모양을 이르는 뜻.)

귀머거리장군(將軍)은 연의 한 종류로서 윗머리 양쪽 귀통이에 검은 부등변삼각형을 그린 연이다. 부등변삼각형은 밑변이 5센티미터, 높이가 10센티미터 정도이다. 아이들이 연을 겨우 내내 띄우다가 농사가 시작하는 정월 대보름 이후에 연을 날리면 “개백정”이라는 욕을 먹기 때문에 연을 더 이상 날릴 수가 없어서 대보름 전 날인 열나흘날에 그동안 가지고 놀던 연을 날려 보내는데, 이것을 ‘송액(送厄)’이라 한다(전북 남원지방은 속공이라고 한다). 바로 그해에 들 액운을 연에 달아서 멀리 날려 보낸다는 액땀이라고 할 수 있다.

송액할 연을 날릴 때는 연에 연 주인의 이름과 주소와 생년월일을 적고, 붓글씨로 송액만리(送厄萬里)나 송액영복(送厄迎福), 송구영신(送舊迎新) 등을 쓴다. 그리고 연실에 숨고치나 썩 비빈 것, 담배꽂초, 숯가루를 뭉쳐서 창호지를 바른 것을

연에 바투 매달아 불을 붙이고, 이어 열레실을 풀어 공중에 띄운다. 그 사이에 불이 타들어가서 연실을 태우면 연이 연실에서 딱 떨어져서 바람을 따라 멀리멀리 날아간다. 이 연은 다른 연보다 크기 때문에 송액할 때 멀리 날아간다. 이 연처럼 멀리 훌훌 떠나가는 모양을 빗대는 속담이다.

(21) 초정월에 비가 오면 어부가 운다.

(혹한기인 음력 정월 초순에 날이 풀리면서 비가 오면 이로 인하여 고기가 잡히지 않으므로 어부들이 슬퍼한다는 뜻.)

동해안에서 나는 명태는 한겨울 추울 때 잡히는데, 한겨울인데도 동해안에 비가 오고 온도가 올라가면 한류(寒流)에서 나는 명태가 동해안 일대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명태잡이를 생계로 삼은 어부는 명태를 잡을 수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진다. 날씨가 추울 때 추워야 하고 더울 때 더워야 그 기후에 맞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한겨울이 포근하고 한여름이 서늘하여 이상기온이 되면 그 기온에 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말이다.

(22) 첫 정월에 나는 버섯은 먹지도 못한다.

(일이 너무 일찍 되면 도리어 좋지 않다는 뜻.)

세상에는 올되어서 좋을 때가 있고 늦되어서 좋을 때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제때에 제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음식이 나는 때에 먹는 것이 제일 좋다. 농작물이나 어산물(漁產物)이나 산채(山菜)나 약초는 제때에 먹어야 효과가 있으며, 말리고 절이고 묻어두는 것은 아무래도 제철만 못하다. 버섯은 오뉴월 더운 여름, 습기가 있을 때 나오지 한겨울인 첫 정월에 나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첫 정월에 나는 버섯은 없는데도 버섯이 나오는 것처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바로 정월에 버섯처럼 제때가 아닌데 제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은 시도 때도 모르는 철없는 사람이라 좋지 않다는 말이다.

(23) 보름에 팔밥할 놈이 나왔다.

(일반 농가에서 추수할 때 팔의 수확이 여의치 못할 때 불만스럽다는 뜻.)

한국 남부지방에서는 팔을 ‘폴, 풋(발음은 폰)’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이 속담은 ‘대보름에 팔밥을 할 놈이 나왔다’는 뜻이다. 전남지방에서는 대보름이 오면 찹쌀에 팔과 광저기¹⁹⁾와 콩과 차조를 넣어서 밥을 찐다. 이 밥을 흔히 ‘찰밥·찰쌀밥·폴밥’이라고 한다. 전국에서 오곡 풍년이 들라고 해먹는 오곡밥인데, 남부지방에서는 찹쌀에 붉은색이 나라고 팔을 많이 넣기 때문에 대개 팔밥(폴밥)이라고 한다.

가을 추수 때 팔농사가 잘 안 되었으면 대보름에 동네 사람 누군가가 팔밥을 해 먹지 않은 탓이라고 하고, “보름에 폴밥을 해 먹을 놈이 나와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풍년 들기를 온 동네 사람이 소원하는데, 이러한 소원에 불참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속담이다.

(24) 개 보름 쇠똥.

(즐거워야 할 명절이나 잘 먹고 지내야 할 날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무의미하게 지낸다는 뜻.)

정월 대보름에 사람이 개에게 먹이를 주면 개에게 파리가 쫓아 올 뿐 아니라 개가 파리해진다고 믿어 개를 굶기는 풍습이 있었다. 이 풍습은 오래되었는데 조선시대에도 정월 대보름날은 집에서 기르는 개를 매어두고 음식을 주지 않았다.

예로부터 개는 놀고 먹는 편한 팔자라고 생각해 왔던 우리는 호강에 겨운 사람들을 가리켜 “개팔자”, “오뉴월 개팔자”, “오뉴월 댐싸리 밑에 늘어진 개팔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대보름날만은 하루 종일 개를 굶겼다. 그래서 여러 끼를 굶어 배가 무척 고풍 처지나 명절 같은 날 제대로 지내지 못하는 것을 빗대어 “개 보름 쇠똥”한다고 말하였다.

19) 광저기는 동부라고도 하며, 한자어로는 강두(豇豆)·강자두(豇子豆)·대각두(大角豆)·장두(長豆)라고도 한다. 그 모양이 콩팥처럼 생겼다고 해서 신곡(腎穀)이라는 별칭도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25) 설은 질어야 좋고 보름은 밝아야 좋다.

(설은 눈이 많이 와야 좋고 대보름은 밝고 환한 달이 떠야 풍년이 들어서 좋다는 뜻.)

설은 설달그믐 무렵이라 달이 없고 추우며 밤이 길며 캄캄하다. 설음식을 장만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설 환경 때문에 힘이 든다. 설 전후 날씨가 질어(습기가 있어) 눈이 오면 날씨도 푸근해지고 주변이 밝아 일하기 좋고 놀기에도 좋다. 무엇보다도 설이 질면 농사에 도움이 된다. 설이 질다는 것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 한다는 뜻으로, 눈이 농작물을 덮어 이불 구실을 함으로써 동해(凍害)를 예방함과 동시에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된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보리농사 풍년 든다.”고 말하기도 한다. 음력 오월과 동짓달, 유월과 설달이 상관관계가 있어서 “오동지 육선달”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눈이 많은 해는 다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므로 좋다.

한편 대보름에는 사람들이 보름달을 보고 새해 소원을 비는데, 둥근 보름달이 떠야 풍년(豊年)이 든다고 믿는다. 올해 한 해는 보름달 같이 사람이 밝고 건강할 것이라는 예언을 할 수 있으므로 보름달이 밝기를 바란다. 만약에 구름이 끼어서 보름달을 볼 수가 없으면 한 해 농사도 캄캄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는 달을 숭배하는 망월기원(望月祈願) 심리가 들어 있다. 또한 보름날에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밤늦게까지 함께 즐기는데, 달이 밝고 날씨가 좋아야 쥐불놀이를 포함한 각종 보름놀이를 제대로 할 수 있었다.

3) 한식과 관련된 속담

한식은 음력 2월 또는 3월에 들기도 하는데, 2월에 한식이 드는 해는 철이 이르고 3월에 한식이 드는 해는 철이 늦다고 한다. 이날 비가 오면 ‘물한식’이라고 하여 그해에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있다. 또 한식날 철둥이 치면 흉년이 들 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매우 꺼려한다. 한식은 조선시대에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사대명절에 속했다. 다음으로 한식과 관련된 속담을 제시한다.

(26) 정성이 있으면 한식에도 세배 간다.

(아무리 때가 늦어도 정성만 있으면 하려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

(27)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한식과 청명은 보통 하루 사이이므로 하루 먼저 죽으나 늦게 죽으나 별 차이가 없다는 뜻.)

한식날 조정(朝廷)에서는 종묘(宗廟)와 각 능원(陵園)에 제향을 지냈으며, 민간에서는 성묘를 했다. 한식의 유래에 대해서는, 중국의 옛 습속에 이날 풍우가 심하여 불을 금하고 찬밥을 먹던 습관에서 나왔다는 설과, 진(晋)나라의 현인(賢人) 개자추(价子推)가 이날 산에서 불에 타죽었으므로, 그를 애도하는 뜻에서 이 날 불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는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비가 오는 한식날을 물한식이라 하며 개자추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내리는 비라고 믿었다. 한식(寒食)은 4대 명절(설, 단오, 추석, 한식)의 하나로 24절후의 하나인 동지(冬至) 후 105일 또는 그 이튿날에 드는데 청명(淸明) 이튿날이거나 같은 날일 때도 있다. 대체로 한식과 청명은 양력 4월 5~6일쯤 하루 사이로 든다. “한식날 비가 오면 그 해에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와 비슷한 속담으로는 “도끼 개끼이다.”와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가 있다. 모두 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속담들이다.

4) 단오와 관련된 속담

한국의 단오는 일 년 중에서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서 큰 명절로 생각하여 여러 가지 풍속과 행사가 행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의 속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8) 오월 단오 안에는 못 먹는 풀이 없다.

(양기를 받고 자란 풀들은 건강에 좋다는 의미에서,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인 오월 단오에는 어떤 풀이나 먹어도 좋다는 뜻.)

(29) 단오 선물은 부채요, 동지 선물은 책력이다.

(단오 무렵 더위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친지나 웃어른께 부채 선물을 챙겨 드릴 수 있는 해아림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

5월 초닷새는 중오(重五), 곧 양(陽)의 수인 5가 중복되어 일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다. 양기를 흠뻑 받아 자란 단오 무렵의 풀들이 건강에 좋으리라는 믿음에서 “오월 단오 안에는 못 먹는 풀이 없다</표제어>.”라는 속담과 쑥으로 떡[수리취떡]을 해 먹거나 창포로 머리를 감는 풍속이 생겨났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저자 홍석모(洪錫謨)가 「도하세시기속시(都下歲時紀俗詩)」 ‘익모초(益母草)’에서 “풀이름 익모라 어찌 그리 기이한고 단옷날 캐어야 약효가 좋아 아들 낳는 데는 물론이고 차고 다니면 단전과 종옥에 뛰어난 효과(草名益母一何奇 重午日時採綠宜 不啻宜男爭紉佩 丹田種玉是良醫)”라고 하였듯이, 특히 익모초는 단옷날 중에서도 양기가 가장 왕성한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에 뜯어먹으면 아들을 낳는 데 효험이 있다고 한다.

(30) 단오물 잡으면 농사는 다 짓는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인 단오 무렵에 논물을 받아 두면 농사를 다 지은 거나 마찬가지로라는 뜻.)

단오를 전후한 시기는 본격적인 모내기철이므로, 그때까지 논물을 잘 모아 두어야 제때 모내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오물을 저장해 두면 농사는 다 지어 놓은 것, 곧 풍년이 든 것이나 다름없다는 속담이 생겨났다. 유사한 속담으로 “단오에 비 오면 농사 다 짓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는 단옷날 오는 비의 풍경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상천(上天)이 지인(至仁)하사 유연(油然)히 작운(作雲)하니, 때 미쳐 오는 비를 뉘 능히 막을쏘나. 처음에 부슬부슬 먼지를 적신 후에 밤들어 오는 소리 패연(沛然)히 드리운다. …… 썰 때에 문에 나

니 개울에 물 넘는다. 메나리 화답하니 격양가(擊壤歌) 아니던가.” 오월에 내리는 비는 농사에 긴요하기 때문에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농민의 염원에서 “오월 장마는 꺾다 해도 한다.”라는 속담이 생겨나기도 했다.

단오물²⁰⁾은 단오에 내리는 비[雨]를 이르는 말이다. 단오물은 단옷날 내리는 비를 말하지만, 단옷날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기후점(氣候占)의 하나이기도 하다.

5) 칠석과 관련된 속담

한국의 칠석전설에 의하면 7월7일에 견우와 직녀를 만나는 날이다. 이날 각 가정에서는 밀전병과 햇과일을 차려놓고, 부인들은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의 수명장수와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기도 한다. 한국에 칠석을 관련된 속담은 주로 견우직녀 전설이 언급하고 있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 칠석날 까치 대가리 같다

(칠월 칠석 날 까마귀와 까치가 머리를 맞대어 오작교를 놓아서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함으로써 머리털이 다 빠졌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로, 머리털이 빠져 성긴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뜻.)

(32) 칠석별이 비 흠친다

(음력 7월에 들면서 7일까지 비가 잘 오지 않음을 일컫는 말로서, 이무렵은 시기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권 내에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

20) 단오물 풍속은 농경문화가 정착되고 단오 같은 속절(俗節)이 정착한 이후에 생겨난 세시풍속으로 볼 수 있다. 단오물에 대한 인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충남 부여·예산·금산·천안, 전북 진안에서는 단오에 비가 오면 논농사에 좋다고 여긴다. 부여에서는 “단오물 듣다.” 하여 긍정적으로 여기고, 예산에서는 단오에 비가 오지 않으므로 “단오물은 정승하기보다 더 어렵다.” 할 정도로 단오물을 기다린다. 금산과 천안에서는 모내기에 필요한 비로 여긴다. 전북 진안에서는 “단오물 지워서(기다려서) 모심는다.”라고 할 정도이다. 전남에서는 “단오에 비가 오면 시절이 좋다.” 하였다. 반면 경남 마산과 양산에서는 단오에 비가 오면 잡곡농사가 잘되고, 맑으면 논농사가 잘된다고 한다. 또 부산에서는 “단옷날 그넷줄에 물이 흐르면 그해 농사는 흉년이 든다.”라고 하였다.

칠석은 견우직녀(牽牛織女) 설화에서 유래한 말이다. 옛날 하늘나라에 살던 견우와 직녀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각자의 일을 소홀히 하여 옥황상제의 미움을 샀다. 그리하여 옥황상제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각자 떨어져 살게 하고는 매년 음력 7월 7일 칠석날 한번만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둘은 정작 칠석날이 되어도 은하수가 가로막고 있어 건널 수가 없었는데, 이 딱한 사연을 알게 된 지상의 까막까치가 다리를 놓아주어 서로 만나 회포를 풀 수 있게 되었다. 매년 칠석 무렵이면 까마귀와 까치인 오작(烏鵲)이 하늘로 올라가 오작교를 놓아주어 만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다리를 놓기 위해 둘을 머리에 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의 털이 다 빠진다는 것이다. 칠석 무렵에는 근처에서 까마귀와 까치를 볼 수 없다는데 혹 있다면 병들어 약한 놈뿐이라고 한다. 이 속담은 달리 표현하여 “칠월 칠석날 까치 대머리 같다.”라고 하기도 한다.

6) 추석과 관련된 속담

추석은 한국에서 한가위라고도 한다. 추석 이른 아침에 사당을 모시고 있는 종가에 모여 고조까지의 차례를 지낸다. 차례를 마치고 난 뒤 알맞은 시간에 소놀이는 진행된다. 추석의 대표적인 절식은 송편이다. 이에 대해 나타나는 한국의 속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3) 풍주의 송편이 주발 뚜껑 송편 맛보다 못하다.

(풍주와 같이 좋은 그릇에 담긴 맛 좋은 송편이라 할지라도 정성과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값어치 없고 볼품없는 주발 뚜껑에 담긴 송편보다 맛이 좋을 리 없다는 뜻.)

한국은 예로부터 한가위가 되면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차례를 지내기 위하여 많은 음식을 장만하였다. 그리하여 한가위 음식은 시절식 가운데 음식 종류가 가장 많고 맛이 가장 뛰어나며 색상도 화려하다.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어 추수를 시작하는 때이므로 햇곡식이나 햇과일을 비롯하여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가 많

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가족 간의 사랑과 정성이 깃든 음식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이 맛있고 풍요롭지만, 그러한 정과 사랑이 없는 음식은 아무리 진수성찬이고 좋은 그릇에 담겨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속담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 간의 허물없는 사랑과 정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 간에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사람 사는 재미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깊은 뜻을 품고 있다.

(34)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에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가장 기쁘고 즐거울 것이 한국 풍속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은 명절이기에 일년 365일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바람이 나오게 된다는 뜻.)

(35) 근친길이 으뜸이고 화진길이 버금이다.

(추석날 하루 동안 친정나들이를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큰 기쁨이며 희망이라는 뜻.)

(36) 보은 아가씨 추석비에 운다.

(보은에서는 대추 흉년이 들면 보은의 아가씨가 시집가기 힘들어 운다는 의미로 추석비를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뜻.)

추수철인 가을에 비가 오는 것을 농가에서는 매우 반갑지 않게 여긴다는 뜻의 속담. 곡식이나 과일이 결실을 맺어 수확할 때인 추석 무렵에 비가 오면 흉년이 들어 혼수를 장만하지 못하게 되므로 시집을 가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예부터 대추의 고장으로 이름 난 보은(報恩)에서는 대추 흉년이 들면 보은의 아가씨가 시집가기 힘들어 눈물을 흘린다는 뜻의 속담이다. 보은은 충북에 있는 고을의 이름이다. “삼복에 비가 오면 보은 처자 울겠다.”라는 속담도 있을 만큼 보은과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다. 그리고 보은은 예부터 ‘보은 대추나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추로

이름나있는 고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비야비야 오지마라, 대추꽃이 떨어지면, 보은 청산 시약시들, 시집못가 눈물난다.”라는 타령조의 민요가 생겨났다.

대추나무는 초복 무렵에 첫 수정을 하고, 이때 실패하면 중복이나 말복에 또 수정을 하게 되나, 수정을 잘 했다 하더라도 추석 무렵에 비가 내리면 대추 농사를 망치게 된다. 추석비는 대추나무에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 해롭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때 내리는 비를 매우 꺼렸던 데에서 유래한 속담으로 볼 수 있고, 더 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대추의 고장인 보은을 인용하여 ‘보은 아가씨가 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7) 작년 추석[팔월]에 먹었던 오례송편이 나온다.

(다른 사람의 아니꼬운 행동에 속이 뒤집힐 것처럼 비위가 상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8) 옷은 시집을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옷은 시집갈 때 가장 아름답고 곱게 입을 수 있고, 음식은 한가위에 가장 풍성하게 잘 먹을 수 있는데, 이처럼 잘 입고 잘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기는 뜻.)

예로부터 시집가는 일은 인륜지대사라고 하여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로 여겼으며, 딸을 시집보내면 기둥뿌리가 흔들린다고 할 정도로 온 정성을 다하여 혼수를 장만하였다. 따라서 일생 동안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때는 바로 시집 올 때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위가 되면 한해의 농사를 짓고 나서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햇곡식 중 가장 좋은 것만을 골라 풍성한 음식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사람이 가장 바라는 소망인 잘 입고 잘 먹고 싶다는 심정을 이 두 가지에 빗대어서 표현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예부터 시집가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으며, 한가위는 한국 최대의 명절로 꼽혀왔다. “옷이 날개”라는 속담처럼 옷은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였다. 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한

가위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상징이었다. 또한 한가위는 오랜만에 일손을 놓고 온 가족과 친척이 한자리에 모여 재미있는 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따뜻한 마음과 인정을 나누는 때이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의 마음속에 잘 입고 잘 먹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이러한 속담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7) 중양절과 관련된 속담

중구(重九)는 9월 중의 유일한 소절이며 중국에서는 중양절이라고 한다. 이날의 유래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한국에서 예로부터 중구의 풍속이 전해 오고 있다. 중구의 시절음식으로 국화전과 화채가 있다. 중구에는 각 가정에서 국화전을 해 먹거나 국화주를 빚고, 술과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산이나 계곡에 가서 단풍놀이를 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중양절과 관련된 한국 속담을 제시한다.

(39) 구월 군두 조금에 사돈에 빛 갚는다.

[음력 9월 9일(중양절) 조금 무렵이면 낚시질로 고기를 많이 잡으므로 빛도 갚게 된다는 뜻.]

이 속담이 주로 통용되는 지역은 전남 고흥지방으로 어촌 지역에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구월 조금은 음력 9월 9일 물때가 조금인 날을 말한 것이지만, 군두의 어원과 뜻은 확실치 않다. 조금은 조석(潮汐)의 간만 차가 가장 적은 때로 소조(小潮)라고도 한다. 해수면의 조차(潮差)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음력 한 달을 주기로 달의 위치에 따라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 조차는 초승달과 보름달일 때 최대가 되고, 달이 하현 또는 상현일 때 최소가 되는데, 조차가 가장 작을 때가 조금이며 가장 클 때가 사리이다. 그런데 음력 9월 9일은 물 수(數)로 조금 뒷날에 해당되므로 조석차(潮汐差)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된다.

어류(魚類)는 일반적으로 해수의 조석차가 적은 물때에 연안(沿岸)에 내유(來游)하는 습성이 있어, 조금 무렵에는 낚시 어기(漁期)와 정치성(定置性) 어기(漁期)에 알맞으며, 특히 입조시(入潮時)의 어획(漁獲)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속담은 어업의 최적기라 할 수 있는 시기에 어촌에서 해야 할 일을 말한 것이

다. 적기에 꼭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사돈의 빛까지 갚을 정도로 부유해질 수 있음을 강조한 속담이다.

3.2.3.2. 중국 명절 속담의 양상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자 문화를 표현해 내는 도구로서, 한 민족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한 민족의 언어에는 그 민족의 생활모습과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문화심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혈후어는 대부분 민간에서 구어의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라 민속 문화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혈후어 속에는 풍부한 중국 전통 민속 문화가 담겨져 있다. 혈후어는 독특한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민속 문화와 밀접하다. 혈후어의 구조는 전, 후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즉 전반부분과 후반부분이다. 전반부분은 한 가지의 비유이고 후반부분이 비유의 설명이다. 하지만 비유와 설명은 같은 뜻으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표현형식을 나타낸 것이다. 앞부분은 ‘事(사)’아니면 ‘物(물)’의 형상적이고 생동적인 비유로 표현하며, 뒷부분은 판단, 평가, 추리 등 방식을 통해서 앞부분의 해설, 설명 등을 하면서 앞부분에서 담긴 것을 가르쳐 주고 혈후어의 본의를 가진 부분이다.

세시명절은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문화적인 면에서 볼 때 그 속에 음식과 놀이, 사상과 종교 등 사회의 많은 활동을 담고 있는 민속 문화의 결정체이다. 이런 세시풍속은 또 다른 문화인 언어에 반영 되는데, 예컨대, 세시풍속이 언어의 소재가 되어 언어를 풍부하게 해 주기도 하고 또한 언어를 통해 세시풍속이 널리 알려지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중국 명절과 관련된 혈후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春節(춘절)²¹⁾과 관련된 혈후어

중국의 전통명절 중에서 가장 중시되고 대표되는 것이 바로 춘절이다. 춘절은 단지 음력 정월 초하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큰 명절로서, 일반적으로 음력 12월 23일부터 정월 15일 이전까지 지속되어 다채로운 세시풍속이 행해진다. 이 기간 중 선달 그믐날 밤과 정월 초하루는 춘절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정월 보름까지 계속되는 춘절 기간을 위해 사람들은 年貨²²⁾를 준비하는데 年貨는 춘절을 지낼 때 사용하는 물건으로 음식, 門神(문신), 春聯(춘련) 등의 장식품 등을 포함한다. 예(40ㄱ-ㄴ)는 춘절에 年貨를 준비와 관련된 혈후어이다.

(40) ㄱ. 春節前的年貨 - 滿街滿巷

(마치 춘절 전의 설날 용품마냥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는 뜻.)

ㄴ. 大門口的春聯 - 年年有

(대문 앞에 붙은 춘련처럼 매년 있는 일이라는 뜻.)

ㄷ. 臘月三十賣完門神 - 脫貨(禍)求財

(선달 그믐날의 문신을 다 팔았으니 화를 면하고 재물을 구한다는 뜻.)

ㄹ. 隔年的春聯 - 沒用處

(마치 지난해의 춘련인 듯 쓸모가 없다는 뜻.)

21) 사실상 혈후어에서는 ‘춘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혈후어보다 ‘初一’ 혹은 ‘大年初一’, ‘過年’ 등을 사용한다.

22) 중국에서 설날은 “年”, “年下”, “過年”, “大年”, “春節” 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날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다 “年”자를 붙였습니다. “연화(年貨)”이란 말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설날에 필요한 물건의 뜻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큰 명절인 춘절을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은 많은 물건을 구입해서 준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유통도 잘 안 되고 몰품도 그리 풍부하지 않아서 설날에 물건을 구입할 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년래 설날 당일만 빼고 백화점이나 상점은 다 영업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좀 덜 하지만 이런 미리 설맞이 준비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年貨” 구입하는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바로 중국 광주에서 “年貨”를 구입하러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출처: 광주일보-대양망.)

새해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 장만이다. (41ㄱ)에서는 제석(除夕) 이전에 음식을 모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설날 그믐날 주방은 ‘너나 할 것 없이 바쁘다(你忙我也忙)’. 설날 그믐날에는 솥에다 여러 가지 음식을 볶고 또 볶아 춘절 기간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데, 예(41ㄴ)에서의 ‘볶다’는 의미의 ‘炒(chao)’와 ‘싸우다’는 의미의 ‘吵(chao)’를 해음하여 ‘싸우기 시작하다(吵起來了)’는 의미로 사용되어 세시풍속의 형상적인 비유를 통해 실제적인 의미를 재미나게 표현하였다. 사실상, 이런 짧은 험후어를 통해 미리 음식을 준비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중국의 세시풍속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1) ㄱ. 除夕進廚房 - 你忙我也忙

(설날 그믐날 주방에 들어가니 너나 할 것 없이 바쁘다는 뜻.)

ㄴ. 除夕晚上的小鍋 - 又炒(吵)起來了

(설날 그믐날의 솥이니 또 다투기 시작하다는 뜻.)

ㄷ. 大年初一吃窩頭 - 不香

(설날에 옥수수 찰빵을 먹으니 맛이 없다는 뜻.)

ㄹ. 過年敲鍋蓋 - 窮的叮噹響

(설에 텅비어 있는 솥의 뚜껑을 치고 있으니 매우 가난하다는 뜻.)

ㅁ. 年三十的案板 - 借不得

(설날 그믐날의 도마이니 집집마다 사용하므로 빌릴 수 없다는 뜻.)

ㅂ. 年三十的案板 - 不得空

(설날 그믐날의 도마이니 비어 있을 틈이 없다는 뜻.)

ㅅ. 年三十借菜刀 - 不是時候

(설날 그믐날 부엌칼을 빌리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

설날 그믐날(年三十) 밤, 즉 除夕에 먹는 만찬을 ‘年飯’ 또는 ‘團年飯’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온 가족이 모두 참석해서 둥그렇게 모여 앉아 즐긴다는 의미이다. 가족들은 함께 음식을 먹고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42) ㄱ. 三十晚上團年飯 - 沒外人

(선달 그믐날 밤에 團圓飯을 먹으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아 즐겁게 이 야기꽃을 피운다는 뜻.)

ㄴ. 除夕吃年飯 - 皆大歡喜²³⁾

(선달 그믐날 밤에 年飯을 먹으니 온 가족이 단란하게 지낸다는 뜻.)

ㄷ. 三十晚上吃魚 - 有頭有尾

(선달 그믐날 밤 생선을 먹으니 시작도 있고 끝도 있으며,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뜻.)

제석(除夕)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교자(餃子)를 먹는다. 교자 먹기와 관련된 중국 혈후어는 다음과 같다.

(43) ㄱ. 大年初一吃餃子 - 頭一回

(정월 초하루에 교자를 먹으니 처음이라는 뜻.)

ㄴ. 大年初一吃餃子 - 都一樣

(정월 초하루에 교자를 먹으니 모두 똑 같다는 뜻.)

ㄷ. 大年初一吃餃子 - 沒外人

(정월 초하루에 교자를 먹으니 외부인이 없다는 뜻.)

이상의 혈후어들은 춘절의 음식과 관련된 것이다. 짧은 혈후어 속에 춘절의 음식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화합하고 즐기는 춘절의 분위기가 드러난다. 제석의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 교자와 年飯을 먹으므로 가족들을 즐기는 춘절의 모습을 형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정월 초하루에 의관을 갖추는 예의의 필요성을 유머러스하고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3) 除夕이 되면 집집마다 年飯을 먹는데, ‘皆大歡喜’(모두 아주 즐거워하다)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함께 모여 年飯을 먹는 가족을 의미한다. 年飯을 먹는 것은 가족의 화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 이외의 외부인은 없다. 그래서(42ㄱ)에서 제시한 ‘三十晚上吃年飯 -- 沒外人(선달 그믐날 밤에 年飯을 먹다. -- 외부인이 없다.)’과 연결해서 볼 때 그 표현은 다르지만 외부인 없이 가족이 함께 즐겁게 먹는 年飯의 의미를 잘 나타내준다.

(44) ㄱ. 大年初一穿大衫 - 一個樣

(정월 초하루에 두루마기를 입으니 누구나 다 입게 되므로 다 똑같다는 뜻.)

ㄴ. 大年初一的袍子 - 借不得

(정월 초하루의 두루마기이니 사람마다 입게 되니 빌릴 곳이 없다는 뜻.)

폭죽을 터뜨리는 풍습에는 벽사(辟邪)의 의미 외에도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해의 길함을 구하는 경축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제석부터 정월 초하루까지는 여기저기서 폭죽 소리가 쉬지 않고 시끌벅적 울려 퍼져 춘절의 분위기를 최고조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모습이 혈후어 속에 나타나 있다.

(45) ㄱ. 年三十晚上的爆竹 - 不住点

(선달 그믐날 밤의 폭죽이니 그치지 않는다는 뜻.)

ㄴ. 大年午夜的鞭炮 - 天花亂墜

(그믐날 밤의 폭죽이니 말만 번지르르하다는 뜻.)

ㄷ. 初一早上放鞭炮 - 正是時候

(초하루 아침에 폭죽을 터뜨리니 시기가 마침 적절하다는 뜻.)

ㄹ. 大年初一的爆竹 - 響(想)得早

(정월 초하루의 폭죽이니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

정월 초하루 아침이 되면 새 옷을 단정히 갖춰 입고 집안의 어른들께 새해 인사를 하고 친지, 이웃이나 친구를 상호 방문하여 길한 의미의 새해 인사를 하면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46) ㄱ. 拜年的話 - 光說好

(새해 인사말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뜻.)

ㄴ. 十五個癩子拜年 - 七高八低

(15명의 절름발이가 세배를 하니 들쭉날쭉하여 고르지 않다는 뜻.)

- ㄷ. 拜年的嘴巴 - 盡說好話
(새해 인사를 할 때의 입이니 좋은 말만 한다는 뜻.)
- ㄹ. 床底下拜年 - 伸不直腰
(침대 밑에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세배를 하니 아부한다는 뜻.)
- ㅁ. 拜年不磕頭 - 干什麼來了
(세배할 때 절을 하지 않으니 찾아온 목적을 알 수 없다는 뜻.)
- ㅂ. 正月十五才拜年 - 晚了半月
(정월 보름이 되어서야 세배를 하니 때가 훨씬 지났다는 뜻.)
- ㅅ. 啞巴拜年 - 多磕頭少說話
(병어리가 세배하듯 하니 절은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해야 한다는 뜻.)
- ㅇ. 熊瞎子拜年 - 不敢受這個禮
(앞 못 보는 곰이 세배를 하니 인사 받을 입장이 되지 못함을 뜻함.)
- ㅈ. 黃鼠狼給雞拜年 - 沒安好心
(족제비가 닭에게 세배를 하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
- ㅊ. 狐狸找公雞拜年 - 有你上的當
(여우가 수탉에게 세배를 하니 속일 작정을 한다는 뜻.)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춘절의 전통풍습에 관한 혈후어를 행해지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분류하였다. 춘절 전에 연화(年貨)를 준비하고 그 다음으로 명절음식을 먹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며 폭죽을 터뜨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를 한다. 이외에 춘절과 관련하여 생활 속에 나타난 혈후어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47) ㄱ. 叫花子過年 - 窮講究
(거지가 설을 쇠게 하니 궁하면 구하게 된다는 뜻.)
- ㄴ. 過年的豬 - 活不久
(설을 쇠는 돼지와 같으니 오래 살지 못한다는 뜻.)
- ㄷ. 窮債戶過年 - 躲躲閃閃
(채무자가 설을 쇠니 요리조리 슬슬 피한다는 뜻.)

ㄹ.三十晚上失了牛 - 明年的事

(선달 그믐날 밤에 소를 잃으니 당장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

ㄱ.三十晚上沒月亮 - 年年如此

(선달 그믐날 밤에 달이 없으니 해마다 그렇다는 뜻.)

ㄴ.年畫上的春牛 - 離(犁)不得

(연화에 그려진 소는 쟁기질을 할 수 없으니 헤어질 수 없다는 뜻.)

ㄷ.年畫上的魚 - 中看不中吃

(연화에 그려진 물고기그림이니 그림에 떡이라는 뜻.)

ㄹ.大年三十晚上熬稀粥 - 年關難過

(선달그믐 저녁에 묽은 죽을 끓이니 연말은 보내기 어렵다는 뜻.)

ㅈ.大年三十看黃曆 - 沒日子了

(선달그믐에 역서를 보니 좋은 날이 더 이상 없다는 뜻.)

ㅊ.大年初一逮兔子 - 有它過年, 沒它也過年

(설에 토끼를 잡으니 어찌되든 설은 쇠게 마련이라는 뜻.)

2) 정월과 관련된 헐후어

원소절(元宵節)은 음력 정월 15일로 새해의 첫 번째 만월의 밤이다. ‘宵’는 ‘夜’의 의미이고 ‘正月’은 ‘元月’이라고 부르기도 하기에 정월 15일 밤을 원소절이라 부른다. 또한 이 날에는 밤새도록 등을 켜기 때문에 ‘燈節’이라고도 한다. 원소절에는 관등(觀燈)놀이를 하고 원소를 먹는 풍속이 있는데, 헐후어에는 다음과 같이 관등놀이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48) ㄱ.正月十五觀燈 - 眼花繚亂

(정월 대보름에 관등놀이를 하니 눈을 어지럽게 한다는 뜻.)

ㄴ.正月十五看花灯 - 走着瞧

(정월 대보름에 구경하는 꽃초롱 보듯하니 훗날 두고 보자며 버르고 있다는 뜻.)

ㄷ. 正月十五的走馬燈 - 到處見

(정월 대보름의 주마등이니 곳곳에서 눈에 띈다는 뜻.)

ㄹ. 正月十五的走馬燈 - 反復無常

(정월 대보름의 주마등이니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다는 뜻.)

(49) ㄱ. 正月十五舞燈籠 - 熱鬧一陣

(정월 대보름에 용등을 들고 춤을 추니 시끌벅적하다는 뜻.)

ㄴ. 正月十五的燈籠 - 任人耍

(정월 대보름의 용등이니 마음껏 가지고 논다는 뜻.)

ㄷ. 正月十五的高蹺²⁴⁾ - 半截不是人

(정월 대보름의 긴 막대기 高蹺이니 반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

원소절의 명절음식 ‘원소’는 속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찹쌀가루로 빚어 물에 삶거나 기름에 튀겨 만든 동그란 음식이다. 남방에서는 이를 ‘湯圓’이라고도 한다.

(50) ㄱ. 正月十五賣元宵 - 抱成團

(정월 대보름에 원소를 파니 동그랗게 뭉쳐서 만든 원소처럼 한데 뭉친다는 뜻.)

ㄴ. 正月十五的蒸籠 - 沒空

(정월 보름의 찜통이니 비어 있을 겨를이 없다는 뜻.)

3) 청명과 관련된 혈후어

청명절은 일정한 풍속 활동과 기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날에는 조상에 대한 추도와 성묘가 이루어진다. 옛 풍속에 따르면 성묘를 할 때 사람들은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조상의 무덤 앞에서 제사 지내고 지전을 태우며 봉분을 정리하고 흙

24) 죽마(竹馬)놀이의 일종으로, 극중에서 전설상의 인물로 분장한 배우가 두 다리를 각각 긴막대기에 묶고 걸어가면서 공연하는 민속놀이이다.

을 덮는다(국립민속박물관 2006a:89). 다음과 같은 혈후어는 조상에 대한 제사와 추모를 중시하는 중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심리를 보여준다.

(51) ㄱ. 清明節上墳 - 干鬼事

(청명절에 성묘를 가니 귀신이 좋아할 일을 하므로 좋지 않은 일을 한다는 뜻.)

ㄴ. 上墳燒紙錢 - 自家哄自家

(성묘를 가서 지전을 태우니 집안사람들끼리 서로 달랜다는 뜻.)

ㄷ. 上墳不帶紙錢 - 惹老祖宗生氣

(성묘에 지전을 챙겨가지 않으니 조상의 노여움을 산다는 뜻.)

ㄹ. 清明節上墳 - 哄死人

(청명절에 성묘를 가니 망자를 달랜다는 뜻.)

4) 단오와 관련된 혈후어

음력 5월 5일은 단오절로 ‘단’은 ‘초’와 같은 뜻이며 ‘단오(端五)’ 또는 ‘초오(初五)’라 한다. 민간에서는 단오절을 ‘용주절(龍舟節)’, ‘종자절(粽子節)’, ‘시인절(詩人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단오에 행하는 풍속과 관련된 명칭으로 단오의 다양한 별칭을 통해 단오절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52) ㄱ. 端午的粽子 - 一串儿

(단오의 粽子이니 좋지 않은 일이 연속된다는 뜻.)

ㄴ. 端午節包粽子 - 有稜有角

(단오절에 粽子를 먹으니 매우 억울하다는 뜻.)

ㄷ. 五月初四包粽子 - 扎扎实實

(5월 4일에 종자를 싸니 빈틈없이 단단하다는 뜻.)

ㄹ. 端午節吃粽子 - 屈怨(原)死了

(단오절에 종자를 먹으니 매우 억울하다는 뜻.)

이상의 혈후어는 단오절에 먹는 종자와 관련된 혈후어이다. 종자는 대나무 잎이나 갈대잎으로 찰싹을 싸서 오색실로 삼각형이나 사각형, 원추형 등 다각의 형태로 묶은 다음 쪄 먹는 음식으로 ‘角黍’라고도 한다. 위에 제시한 혈후어 속에 ‘각지고(有稜有角)’, ‘실로 엮어진(一串儿)’ 종자의 모양이 잘 나타나있다.

(53) ㄱ. 五月龍舟逆水去 - 个个都要爭上游

(오월의 용선이 물을 거슬러 가니 하나하나 앞 다투어 헤엄쳐 올라간다는 뜻.)

ㄴ. 五月龍船逆水去 - 個個使勁

(오월의 용선이 물을 거슬러가니 모두 하나같이 힘을 쓴다는 뜻.)

단오절에는 앞과 뒤를 용 모양으로 장식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용주경기가 행해지는데, 민간에서는 이를 모두 전국 시대 초나라의 애국시인 굴원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5) 칠석과 관련된 혈후어

음력 7월 7일 칠석은 중국 전통명절 중 낭만적 색채가 가장 풍부한 날로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애뜻한 사랑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칠석 세시풍속과 관련된 혈후어는 많지 않고 직접적으로 칠석의 세시풍속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 견우직녀 전설과 관련된 혈후어는 다음과 같다.

(54) ㄱ. 七月七牛郎會織女 - 一年一度

(칠월 칠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니 일 년에 한 번 있는 일이라는 뜻.)

ㄴ. 七月七過生日 - 趕巧了

(칠월 칠일날 생일을 쇠니 공교롭다는 뜻.)

6) 추석과 관련된 헐후어

중추절은 음력 8월 15일로 춘절, 단오와 함께 중국의 3대 전통명절 중 하나이다. 이 날은 달이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가을의 청명한 날씨 때문에 일 년 중 가장 크고 밝게 보인다. 헐후어 속에도 중추절 달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다.

(55) ㄱ. 八月十五的月亮 - 正大光明

(8월 15일의 달이니 달이 기울지 않고 커서 공명정대하다는 뜻.)

ㄴ. 八月半的月亮 - 格外明

(8월 15일의 달이니 매우 밝다는 뜻.)

ㄷ. 八月十五的月亮 - 又圓又滿

(8월 15일의 달이니 둥글고도 가득 차다는 뜻.)

ㄹ. 中秋節找月亮 - 正好

(중추절에 달을 찾으니 마침맞다는 뜻.)

ㅁ. 中秋夜裡打燈籠 - 多此一舉

(중추절 밤에 초롱불을 켜니 필요 이상의 짓을 한다는 뜻.)

중추절 날 밤에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달을 감상하고 월병을 먹는다. 타향에 있는 사람들은 달을 보며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도 한다. 중국 사람들에게 ‘원(圓)’은 완벽하고 나무랄 데 없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다음 과 같은 ‘둥그런 것을 만나다’는 좋은 것을 만나는 뜻이다.

(56) ㄱ. 八月十五吃月餅 - 遇圓(緣)

(8월 15일에 월병을 먹으니 달이 둥그렇듯 기회가 딱 들어맞는다는 뜻.)

ㄴ. 八月半夜裡吃圓餅 - 上有圓(緣), 下有圓(緣)

(8월 15일에 월병을 먹으니 위아래 모두 둥글어 인연이 있다는 뜻.)

ㄷ. 八月十五吃月餅 - 齊了心

(8월 15일에 월병을 먹으니 마음을 같이한다는 뜻.)

ㄷ. 八月十五雲遮月 - 掃興

(8월 15일 구름이 달을 가리니 흥이 깨지다는 뜻.)

7) 중양과 관련된 혈후어

음력 9월 9일은 중양절이다. 중양절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은 등고(登高) 습속이 중양의 중요한 세시풍속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점차 재앙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청명한 가을 날씨에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자 하는 일종의 체육 오락 활동으로 변화였다. 중양절의 등고활동을 보여주는 혈후어는 다음과 같다.

(57) ㄱ. 九月九上山 - 登高望遠

(구월 구일에 산에 올라가니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본다는 뜻.)

ㄴ. 重陽節上山 - 站得高 望得遠

(중양절에 산에 올라가니 높이 올라가 멀리 바라본다는 뜻.)

지금까지 혈후어에 나타난 중국의 여러 세시풍속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혈후어는 한어 특유의 표현형식으로서 풍부한 중국의 민족문화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소재로 한 경우가 많은데, 중국 대중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세시풍속 역시 혈후어의 소재로서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한·중 명절 관련 언어 표현 비교

3장에서는 특정한 사회·문화적 의미가 부여되어 전승되어 온 한국과 중국의 세시명절 관련 언어 표현을 어휘, 성어, 속담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중국이 오랜 세월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진 언어적, 문화적 접촉의 결과 세시명절 관련 언어 표현 가운데 상당히 많은 공통점들이 형성되어 있는 한편, 고유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이점 또한 없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4장에서는 세시명절과 관련된 언어표현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한·중 명절 관련 언어 표현 공통점

4.1.1. 한·중 명절 관련 어휘의 공통점

한·중 두 나라의 전통 명절 풍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 음식 그리고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한·중 두 나라는 제사를 다 같이 지내는 공통점이 있고 그 어휘들에서도 공통점이 발견된다. 제사는 전통적인 민간신앙 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조상숭배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다신숭배 신앙이다. 조상숭배 사상은 가(家)신앙에 속하는 것인데, 더 넓게 보면 사령숭배²⁵⁾부터 비롯된다. 다신숭배 신앙이란 우주의 삼라만상을 모두 신격화시켜 경외하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물과 자연력 숭배와 상상물 숭배 등이 있다. 한중 두 나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전통 민간신앙에 따라 어휘들이 많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설날과 관련된 제사 어휘는 ‘세배’, ‘묵은세배’, ‘기년제’, ‘기풍제’ 등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拜年(세배)’, ‘太歲神(대세신)’, ‘祭財神(제재신)’ 등이 있다. 한국의 설날과 관련된 민간신앙을 보면 주로 조상숭배 신앙이 중심이 된다. 한편 중국은

25) 안택고사와 야광귀 쫓기 등 민간신앙은 다 사령숭배에 속한다.

주로 인물숭배 신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중국 역사상 실존했거나 전설의 인물들에게 초능력을 부여하고 그 인물을 숭배하고 그에게 기원하며 복을 비는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명절음식은 시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만드는데, 한·중 두 나라의 사람들이 음식 문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각 명절마다 명절음식도 다양하다. 따라서 명절음식과 관련된 어휘들도 많이 보인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추석과 관련된 음식 어휘는 ‘햐쌀밥’, ‘송편’, ‘토란국’ 등이 있으며 추석의 대표적인 절식으로서는 ‘송편’이 있다. 송편 속에는 콩, 팥, 밤, 대추 등을 넣는데. 모두 그 해에 생산한 것들로 한다. 중국의 경우는 ‘月餅(월병)’²⁶⁾이 있다. 중추절의 전통음식인 ‘월병’은 원형 모양으로 만드는데 원형은 ‘모임’을 상징하며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으면 하는 염원을 나타낸다.

민속놀이는 그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놀이 자체가 목적인 놀이,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 내기 놀이, 겨루기 놀이, 풍어를 기원하는 놀이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부럼깨기’, ‘줄다리기’, ‘동채싸움’ 등이 있으며 중국에는 ‘燈謎(등미)’, ‘舞燈籠(무등용)’, ‘秧歌舞(양가춤)’, ‘獅子舞(사자춤)’, ‘高蹺(나무다리)’ 등이 있다. 燈謎(등미)는 현재까지 성행하고 있는 중국만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 놀이이기도 하다.

이런 전통 명절 풍속들뿐만 아니라 어휘의 구성에서도 공통점이 보인다. 한·중 명절 관련 어휘를 비교한 결과, 단어 형성법에 있어서 ‘명사+명사’로 구성된 통사적 합성명사의 수가 많은 편이며, 그러한 통사적 합성명사들 가운데 동일한 의미를 지닌 합성명사가 상당수라는 공통점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8) 한국어 어휘:

ㄱ. 썩떡

ㄴ. 문신

26) 최초 원대(元代)周密이 <武林舊事, 蒸作從食>에서 월병(月餅)은 團圓의 의미이며 옛날 음력 중추절 때의 음식으로 중추절 밤에 온 가족이 같이 앉아서 달을 감상하고, 술을 마시고, 월병을 먹었다(중국풍속대사전: 442).

- ㄷ. 세뱃돈
- ㄹ. 조왕신
- ㅁ. 국화주
- ㅂ. 중앙등고

(59) 중국어 어휘:

- ㄱ. 艾糕(애고)
- ㄴ. 門神(문신)
- ㄷ. 壓歲錢(압세전)
- ㄹ. 竈王神(조왕신)
- ㅁ. 菊花酒(국화주)
- ㅂ. 重陽登高(중앙등고)

위의 예들은 두 나라의 명절 관련 ‘명사+명사’의 구조로 된 합성명사들이다. 한국어 어휘 ‘세뱃돈’은 명사 ‘세배’와 명사 ‘돈’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합성명사이다. 한편, 중국어 어휘 ‘壓歲錢’은 명사 ‘壓歲’와 명사 ‘錢’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합성명사인데 이러한 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또한 이 어휘들은 갖고 있는 의미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 어휘 (58ㄷ)의 ‘세뱃돈’과 중국어 어휘 (59ㄷ)의 ‘壓歲錢(압세전)’은 설날에 아랫사람들이 웃어른에게 세배를 한 후에 받은 돈이라는 뜻이다.

4.1.2. 한·중 명절 관련 사자성어의 공통점

사자성어는 비록 짧은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다양하고 의미가 함축된 것을 알 수 있다. 한·중 명절 관련 사자성어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점이 나타났다.

첫째, 명절 관련 사자성어는 형태상으로 동형동이의 사자성어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60) 한국어 사자성어:

- ㄱ. 근하신년 (謹賀新年) → 삼가 새해를 축하하다.
- ㄴ. 국태민안 (國泰民安) →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평안하다.

(61) 중국어 사자성어:

- ㄱ. 恭賀新年 (공하신년) → 신년을 축하하다.
- ㄴ. 國泰民安 (국태민안) →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평안하다.

둘째, 명절 관련 사자성어는 어법 구조상 주로 주술식(<주어+술어>) 구조를 보인다.

(62) 한국어 사자성어:

- ㄱ. 운수대통 (運數大通) →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천운과 기수가 크게 트여 이루어지다.
- ㄴ. 만수무강 (萬壽無疆) → 아무 병 없이 오래오래 삶, 건강과 장수를 축원함.

(63) 중국어 사자성어:

- ㄱ. 官運亨通 (관운형통) → 관운이 형통하다.
- ㄴ. 萬事如意 (만사여의) →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다.
- ㄷ. 合家歡樂 (합가환락) → 온 가족이 즐겁기를 바라다.

주술 구조는 전후 두 부분이 주어와 서술어에 해당된다. 주어인 앞부분은 진술의 대상이고, 서술어인 뒷부분은 앞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형식이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천운과 기수가 크게 트여 이루어지다는 뜻을 지닌 한국어의 ‘운수대통’은 ‘운수’가 주어고 ‘대통’이 서술어이다. ‘관운이 형통하다’는 의미를 갖는 중국어의 ‘官運亨通’이라는 성어의 경우, ‘官運’이 주어이고 ‘亨通’이 서술어이다.

4.1.3. 한·중 명절 관련 속담의 공통점

한·중 두 나라 명절 관련 속담의 공통적 특징은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표면적으로 두 나라 모두 명절 음식에 관련된 것이 특히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내용적으로 두 나라 명절의 유래나 속담을 통해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명절 음식에 관련된 속담을 살펴보자고 한다. 음식문화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식생활 관리를 해왔으며 미리 계산된 음식으로 제철음식을 즐기고 절기에 맞추어 절식을 하는 풍습을 형성하였다. 일 년 동안 계절에 따라 좋은 날을 택하여 명절이라 정하고 갖가지 음식을 차려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고 가족과 이웃 간의 정을 나누어 왔다. 이런 명절 음식과 관련된 속담은 다음과 같다.

(64) 한국어 속담:

ㄱ. 남의 떡에 설 쉰다.

(남의 떡을 얻어 설을 쉰다는 속담. 이웃 간에 정을 나눈다는 뜻.)

ㄴ. 작년 추석[팔월]에 먹었던 송편이 올해 나온다.

(다른 사람의 아니꼬운 행동에 속이 뒤집힐 것처럼 비위가 상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4ㄱ)의 ‘떡’은 설날 음식 ‘흰 떡국’의 필수적인 재료이다. 흰 떡국은 멥쌀가루로 만든 가래떡을 썰어서 육수에 끓여 만든다. 설날의 떡국은 차례상에 올리며 한 그릇씩 먹음으로써 비로소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64ㄴ)의 ‘송편’ 추석 때 중요한 명절식이다. 송편은 지역에 따라 설날이나 음력 이월 초하루인 머슴날에도 만들어 먹지만 역시 가을을 상징하는 음식이다. 송편이란 이름은 송편을 찰 때에 쪼마다 솔잎을 깔기 때문에 붙여졌다. 한가위 때 햅쌀로 빚은 송편은 각별히 오려 송편이라고 하는데 오려는 올벼의 옛말이다.

(65) 중국어 속담:

ㄱ. 大年初一吃餃子 - 頭一回

(정월 초하루에 교자를 먹으니 처음이라는 뜻.)

ㄴ. 八月十五吃月餅 - 遇圓(緣)

(8월 15일에 월병을 먹으니 달이 둥그렇듯 기회가 딱 들어맞는다는 뜻.)

(65ㄱ)의 ‘大年初一吃餃子’는 제석에 교자를 먹는 풍속이 있음을 말하여 준다. 고대 시법(時法)에 따르면 밤 11시에서 1시까지를 자시라 하는데, 이때는 새해와 지난해가 교차되는 ‘交子之時²⁷⁾(子時가 교차되는 시간)’이다. 후에 이 시간에 먹는 음식을 ‘交子’라고 하였고 ‘食’변을 덧붙여 ‘餃子’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자를 먹는 것은 送舊迎新(송구영신), 즉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八月十五吃月餅’은 중국의 중추절에 먹는 전통적인 명절 음식인 월병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에게 ‘圓(圓)’은 완벽하고 나무랄 데 없는 의미가 있다.

한·중 두 나라 명절과 관련된 속담은 내용면에서 주로 명절의 유래에 대해 이루어진 속담과 기원에 대해 이루어진 속담이 있다. 다음에서는 내용면에서 명절의 유래에 관련된 칠석의 속담을 살펴보자고 한다.

(66) 한국어 속담:

ㄱ. 칠석날 까치 대가리 같다.

(칠월 칠석 날 까마귀와 까치가 머리를 맞대어 오작교를 놓아서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함으로써 머리털이 다 빠졌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로, 머리털이 빠져 성긴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뜻.)

칠석은 견우직녀(牽牛織女) 설화에서 유래한 말이다. (66ㄱ)의 ‘칠석날 까치 대가리 같다’는 속담은 매년 칠석이 되면 까마귀와 까치인 오작(烏鵲)이 하늘로 올라

27) 밤 12시는 자시(子時)에 해당되는데, 자시가 되면 날이 바뀌는 것이고, 특히 설달그믐날에 자시가 되는 것은 한 해가 바뀌는 것이다.

가 오작교를 만들어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 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때 다리를 놓기 위해 돌을 머리에 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의 털이 다 빠진다는 뜻이다.

(67) 중국어 속담:

ㄱ. 七月七過生日 - 趕巧了

(칠월 칠일날 생일을 쇠니 공교롭다는 뜻.)

견우직녀 전설의 생성과 유행에 수반하여 민간에서는 ‘乞巧’²⁸⁾ 풍습이 생겨났다. 칠월 칠일이 생일인 것과 ‘공교로운(趕巧)’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칠석에 태어난 것에서 견우직녀 전설을 연상할 수 있고, 이를 직녀의 정교한 베 짜는 솜씨를 얻은 것과 연관시켜 표현하였다. 이 혈후어 본래 의미 ‘공교롭다’는 뜻을 칠석에 직녀성을 향해 정교한 솜씨를 얻길(趕巧) 비는 乞巧 풍습에서 의미적으로 雙關(쌍관)되어 생겨난 것이다.

또한, 내용면에서 기원에 대해 이루어진 속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8) 한국어 속담:

ㄱ. 옷은 시집을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옷은 시집갈 때 가장 아름답고 곱게 입을 수 있고, 음식은 한가위에 가장 풍성하게 잘 먹을 수 있는데, 이처럼 잘 입고 잘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뜻.)

(68ㄱ)의 ‘옷은 시집을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은 원래 뜻대로 일생 동안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때는 결혼식이고 한가위는 수확을 하는 가을에 있는 명절이어서 음식이 풍성하게 넘쳐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옷과 음식을 잘 입고 잘 먹고 싶다는 심정을 이 두 가지에 빗대어서

28) ‘乞巧’란 칠석날 밤에 부녀자들이 바느질감과 과일 등 음식을 차려 놓고 직녀성을 바라보면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도록 비는 것을 의미한다.

표현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69) 중국어 속담:

ㄱ. 八月半夜裡吃圓餅 - 上有圓(緣), 下有圓(緣)

(8월 15일에 월병을 먹으니 - 위아래 모두 둥글어 인연이 있다는 뜻.)

ㄴ. 八月十五吃月餅 - 齊了心

(8월 15일에 월병을 먹으니 - 마음을 같이한다는 뜻.)

(69ㄱ)의 ‘八月半夜裡吃圓餅 - 上有圓(緣), 下有圓(緣)’은 중국에 단원(團圓)사상에 영향을 받고 하늘의 둥근 달(上有圓)처럼 오지 못하는 가족들도 모여 앉(下有圓)다는 소원을 뜻한다고 한다. (69ㄴ)는 둥그런 월병을 먹으며 가족 모두 화합(齊了心)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4.2. 한·중 명절 관련 언어 표현 차이점

4.2.1. 한·중 명절 관련 어휘의 차이점

한·중 명절 관련 어휘의 차이점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의 품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70) 한국어 어휘:

ㄱ. 세배 (명사)

(71) 중국어 어휘:

ㄱ. 拜年 (동사)

위에 제시한 한국 어휘 ‘세배’와 중국 어휘 ‘拜年’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사가 서로 다르다. 즉 ‘세배’는 명사인 반면 ‘拜年’은 동사인 것이다.

4.2.2. 한·중 명절 관련 사자성어의 차이점

한·중 명절 관련 사자성어의 차이점으로는 설날과 관련된 중국어 성어 가운데 길상어와 춘련(春聯)을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외에 중국의 명절풍속만 표현한 고사성어가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72) ㄱ. 熬年守歲 (오년수세)
- ㄴ. 屈志從俗 (굴지종속)
- ㄷ. 明日黃花 (명일황화)

(72ㄱ)에서는 ‘수세’는 설날 그믐날 밤에 지난해를 지킨다 하여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 새해를 기다리는 풍습을 말한다. ‘제석수세’라고 하기도 하며, 민간에서는 ‘오년(熬年)’이라고도 한다. 이는 중국의 ‘年’과 관련된 전설²⁹⁾이 있기 때문이다.

4.2.3. 한·중 명절 관련 속담의 차이점

한·중 명절 관련 속담의 차이점으로는 중국의 험후어에만 해음(諧音)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해음 현상은 중국 언어에 풍부하게 존재하는데 언어를 표현하는데 존재하는 일종의 수사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언어를 사용한 그 시점부터 언어의 주술적인 힘에 의지했던 중국인들과 그 시작을 같이 하였다고 볼 수

29) 중국 전설 중에 ‘연’이라는 괴물이 있었다. 그 괴물은 설날 그믐날이 되면 가까운 마을에 가서 짐승을 잡아먹고 사람을 해친다. 불안에 떨던 사람들을 괴물 ‘연’의 활동시간을 파악하고 날이 어두워져서 다음 날 닭이 울 때까지는 문을 잠그고 숨을 죽여가며 연의 침입을 막았다. 그후부터 사람들을 그날 밤이 되면 집안의 모든 문을 잠그고 몰래 숨어서 ‘年夜飯(연야밥)’을 먹으며 무사하기를 빌게 되었다.

있다.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자연 극복능력이 약했던 과거에는 언어가 하나의 종교적인 존재였으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고 여겨졌다(曲彦斌 1996:29). 이를 시작으로 언어를 통한 인간의 끊임없는 언어활동을 통하여 해음 현상이 중국 언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73) ㄱ. 端午節吃粽子 - 屈怨(原)死了

(단오절에 종자를 먹으니 매우 억울하다는 뜻.)

ㄴ. 臘月三十賣完門神 - 脫貨(禍)求財

(선달 그믐날의 문신을 다 팔았으니 화를 면하고 재물을 구한다는 뜻.)

ㄷ. 八月半夜裡吃圓餅 - 上有圓(緣), 下有圓(緣)

(8월 15일에 월병을 먹으니 위아래 모두 둥글어 인연이 있다는 뜻.)

ㄹ. 年畫上的春牛 - 離(犁)不得

(연화에 그려진 소는 쟁기질을 할 수 없으니 헤이질 수 없다는 뜻.)

(73ㄱ)에서 중국의 단오절에는 종자 먹기와 용주경기가 행해지는데, 민간에서는 이를 모두 전국시대 초나라의 애국시인 굴원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 있는 ‘屈怨’과 시인 ‘屈原’이 발음이 같아서 해음 형상이 나타난다. 여기 혈후어 속에 나타나는 ‘屈怨’이 억울하다는 뜻이다.

(73ㄴ)은 중국 선달 그믐날에 문신을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지만 문신을 해서 화를 피하고 재물을 바라는(脫禍求財) 심리를 보여 준다. 여기 있는 ‘貨(물건)’와 ‘禍(화)’의 발음이 같아서 해음 형상이 나타난다.

(73ㄷ)은 하늘의 둥근 달(上有圓)처럼 가족들이 모여 앉아(下有圓) 둥그런 월병을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圓’과 ‘緣’의 발음은 같고 ‘緣’은 인연을 구한다는 뜻이 있다.

(73ㄷ)에서 중국어‘離’는 이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설날처럼 좋은 날에는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犁’와‘離’는 중국어에서 발음이 같아서 해음 현상을 보일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세시풍속 가운데 특히 명절과 관련된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실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절 관련 어휘와 성어 및 속담 등 세 가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중 세시풍속의 유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명절의 유형을 정리하여 세시풍속에 관한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시풍속 언어는 예측적(豫祝的) 특징과 제의적(祭儀的) 특징, 공동체적(共同體的) 특징을 소유하고 있다는 세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명절에 관한 언어 표현에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3장에서는 세시풍속의 유형을 살펴본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명절에 관한 언어 표현을 명절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어휘 부분은 『한국 세시풍속 전자사전[전자자료]』과 『중국대세시기 I, II』를 문헌자료로 선정하였고 명절 관련 어휘를 수집한 후 정리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명절 관련 어휘는 의미상 주로 이름, 음식, 제사, 놀이와 관련된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자성어 부분은 장기근(2006)과 《사자성어대사전》, 《中國成語大辭典》, 《現代漢語辭典》을 자료로 두 나라 명절 관련 성어의 양상을 제시하였고 사자성어와 고사성어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속담 부분은 『우리말 속담 사전』과 『중국속어대사전』, 『혈후어대전서』를 대상으로 두 나라의 속담 양상을 명절별로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절에 관한 언어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먼저 한·중 명절 관련 언어 표현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첫째, 어휘면에서 볼 때 두 언어의 명절 관련 어휘는 의미면에서 제사와 음식, 민속놀이 등에서 공통점이 많으며, 어휘의 구성면에서 ‘명사+명사’의 구조로 이루어진 합성어가 많고, 이 어휘들은 갖고 있는 의미도 같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예를 들면 한국어 ‘세뱃돈’과 중국어 ‘壓歲錢(압세전)’은 의미가 같으며, 두 어휘의 형태

구조는 ‘명사+명사’의 합성명사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둘째, 사자성어는 형태상으로 동형동의어가 많이 나타나고, 어법 구조상 주로 주술식 <주어+술어>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삼가 새해를 축하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한국어는 ‘근하신년’을 사용하며 중국어도 마찬가지이다. 어법 구조상에서도 주술식 구성을 가지고 있는 성어의 수가 적지 않은바, ‘운수대통(運數大通),’ 관운형통(官運亨通)’이 그 예이다.

셋째, 명절 관련 두 나라 속담의 공통적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표면적으로 두 나라 모두 특히 명절 음식에 관련된 것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어 속담에서는 설날 음식 ‘떡’과 추석 음식 ‘송편’이 즐겨 사용되고 있고, 중국어 혈후어에서도 설날 음식 ‘교자’와 추석 음식 ‘월병’이 많이 보인다. 다른 하나는 내용적으로 두 나라 명절의 유래와 속담을 통해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란다는 점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중국의 명절에 관한 언어 표현에는 공통점이 많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과 중국이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하고 있어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긴밀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교류를 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적인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휘에 있어서, 의미는 같지만 품사가 다른 어휘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한국 어휘 ‘세배’와 중국 어휘 ‘拜年’은 같은 뜻이지만, ‘세배’는 명사이고 ‘拜年’은 동사이다. 또한, 사자성어 부분에 중국에서 ‘熬年守歲(오년수세)’라는 성어는 전설을 내포하고 있고, 중국의 특별한 명절 풍습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속담 부분은 중국어 혈후어에만 해음 현상이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단오절에 있는 ‘端午節吃粽子 → 屈怨(原)死了’ 종자 먹기와 용주경기가 행해지는데, 민간에서는 이를 모두 전국시대 초나라의 애국시인 굴원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 있는 ‘屈怨’과 시인 屈原이 발음이 같아서 해음 현상이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한·중 명절에 관한 언어 표현에는 상당히 많은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그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 언어 교육에

서 이와 같은 언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이루어진다면 언어 학습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명절 관련 언어 표현과 함께 문화적 측면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이나 불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는 전통적인 한·중 명절 관련 언어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이 이루어졌는바,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명절 행사나 언어 표현의 변화 양상까지는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무학(1995), 『한국세시풍속기』, 집문당.
- 공상철·권석한(2001), 『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문화』, 다락원.
- 국립민속박물관 편(2004), 『한국 세시풍속 사전: 정월편』.
- 국립민속박물관 편(2006a), 『중국대세시기 I II』.
- 국립민속박물관 편(2006b), 『한국 세시풍속 사전: 가을편』.
- 국립민속박물관 편(2006c), 『한국 세시풍속 사전: 겨울편』.
- 국립민속박물관 편(2007), 『한국 세시풍속 전자사전[전자자료]』.
- 권오경(2011), 「한·중 열두 달 세시풍속 민요 비교」, 『한국민요학』 32, 한국민요학회, pp.7~54.
- 권 호(2009), 「《歲時風俗》에 나타난 세시풍속의 서술방식과 수용 양상 -4대 명절 중심-」, 『인문과학연구』 2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5~25.
- 김기만(2000), 『한어문 기초 지식 총서 -한어어휘』, 신성출판사.
- 김나리(2011), 「세시풍속의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재의 개발」, 석사학위논문(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태(2009), 『옛마을 세시·절기 풍속: 우리 옛 삶을 찾아 담은 민속 그림 이야기 260』, 이담books.
- 김성원(1987), 『신편 한국의 세시풍속』, 명문당(明文堂).
- 김지영(2006), 「한·중 명절 문화 비교연구 -어원, 유래, 풍속, 음식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만태(2009a), 「세시풍속의 기반 변화와 현대적 변용」, 『비교민속학』 38, 비교민속학회, pp.317~349.
- 김만태(2009b), 「한국 택일풍속의 전승양상과 특징」, 『정신문화연구』 32-1, 한국학중앙연구원, pp.373~401.
- 김만태(2010), 「현대 세시풍속에서 민속놀이의 존재 양상과 향후 전망 -대구, 경북 지방 중심-」, 『비교민속학』 42, 비교민속학회, pp.333~362.
- 김미영(2008), 「일본 세시풍속 연구의 동향과 전망」, 『비교민속학』 37, 비교민속학회, pp.47~75.
- 김명자(1975), 「한국 세시풍속 연구 : 세시풍속에 나타난 여속의 고찰」, 석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 김명자(1986), 「원두들의 민간신앙과 세시풍속」, 『안동문학』 7, 안동대학부설 안동

- 문학연구소, pp.75~91.
- 김명자(1989), 「한국 세시풍속 연구」, 박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
- 김명자(2003), 「세시풍속의 교육적 의의와 실천화」, 『비교민속학』 25, 비교민속학회, pp.175~208.
- 김명자(2004), 「세시풍속의 전승과 현대화 방안 모색」, 『민속연구』 13,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pp.145~166.
- 김명자(2005), 「도시생활 속의 세시풍속」,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pp.17~49.
- 김인희(2002), 「중국 세시풍속 사전의 내용과 체제」, 『민속학연구』 10, 국립민속박물관, pp.169~187.
- 김영중(2010), 「세시풍속의 이해와 현장적용에 관한 연구」, 『논문집』 16, 제주관광대학출판부, pp.31~42.
- 김성식 외(2005), 『남도 민속의 세계』, 민속원.
- 김정은(2004), 「한국어 교육에서의 언어 문화 교육」, 『이중언어학』 26, 이중언어학회, pp.45~67.
- 김중섭(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중언어학』 27, 이중언어학회, pp.59~85.
- 김효경(2010), 「조선 왕실의 세시풍속과 액막이」, 『역사민속학』 33, 민속원, pp.187~233.
- 경서근(2010), 「세시풍속을 통해서 본 중국 12띠의 양상과 문화화 방식」, 『남도민속연구』 20, 남도민속학회, pp.7~28.
- 나경수·송준·김성신(2006), 「세시풍속」, 『남도민속연구』 14, 남도민속학회, pp.401~415.
- 나문숙(1989), 「세시풍속에 관한 주부들의 관심도 연구」, 석사학위논문(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도립번 저, 심종식 역(2005), 『중국민속학의 이해』, 집문당.
- 림 영·안상경(2011), 「중국 조선족 세시풍속의 전승과 변화 연구 - 연변조선족 자치주 '정암촌'의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3, 재외한인학회, pp.193~222.
- 문순덕(2002), 「세시풍속에 나타난 제주 여성 속담」, 『반교어문연구』 14, 반교어문학회, pp.37~48.
- 문형진(2003), 「중국인의 세시풍속과 놀이문화」, 『국제지역정보』 7-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pp.72~76.
- 박운규(1999), 「북한의 세시풍속에 관한 연구 -명절과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종수(2000), 「南北韓 歲時風俗의 傳承實態 比較」, 『우리말글』 20, 우리말글학회, pp.207~223.
- 박성석(2011), 「한·중 정월 세시풍속 비교 연구」, 『경상어문』 17, 경상어문학회, pp.69~93.
- 박숙자(2004), 「한국어와 문화교육」, 『한국언어문화학』 1-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119~129.
- 박진태(2008), 「한·중 단오절의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 37, 비교민속학회, pp.77~106.
- 박환영(2006), 「도시생활 속의 세시풍속」, 『중앙민속학』 11,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pp.51~63.
- 박효진(2006), 「中國 民俗禁忌 研究 -言語와 衣食住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
- 오석민 외(2011), 『세시풍속: 겨울가고 봄이 오고』,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오정화(2009), 「한·중 정월 세시풍속의 기능별 비교 연구 -설·春節, 정월대보름·元宵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 대학원).
- 왕 락(2011), 「한·중 설날 세시풍속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 왕메이윈(2012), 「한중 주요 세시풍속의 제의적 특성 비교연구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 대학원).
- 우인호(1991), 「중국의 春節: 중국의 세시풍속」, 『東方』 8, 한국의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pp.84~87.
- 이명련(2006), 「한·중 세시풍속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부산외국어대학교).
- 이상억(2008), 『한국어와 한국문화』, 소통.
- 이승제·이지양·조남호·배주채(2006), 『한국어와 한국문화』, 새문사.
- 이영식(2007), 「횡성지역 세시풍속 연구 -귀신날을 중심으로-」, 『강원민속학』 21, 강원도민속학회, pp.319~342.
- 이창식(2007), 「영월지역 세시풍속의 전승양상」, 『강원민속학』 21, 강원도민속학회, pp.115~144.
- 이효진(2009), 「세시풍속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문화연구』 30, 한국의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회, pp.141~154.
- 임경순(2009),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 임동권(1985), 『한국 세시풍속 연구』, 집문당.

- 임동권(1999), 『한국 세시풍속 9』, 서문당.
- 임동권 외(2000), 『세시풍속』,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윤덕인(2010), 「한·중·일 전통 세시풍속과 절식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7-23, 관
도대학교 관광연구소, pp.3~30.
- 육 신(1996), 「한·중 양국의 속담 비교 연구 -중국 험후어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명지대학교 대학원).
- 송재용(2011), 「《林下筆記》에 나타난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연구」, 『동아시아고대
학』 26, pp.301~329.
- 손인수(1984), 『한국인의 도와 미풍양속』, 서울 문음사.
- 샤오팡(2006), 『중국인의 전통생활 풍속』, 국립민속박물관.
- 서혜숙(2004), 「세시풍속: 전남 곡성군 오곡면·죽곡면 일대」, 『남도민속연구』 10,
남도민속학회, pp.275~286.
- 신장변(2008), 「세시풍속 시를 통한 조선 후기 세시풍속의 의미와 양상」, 『비교문
화』 46, 한국비교문화학회, pp.185~213.
- 장범성(1999), 『현대 중국의 생활문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장주근(1989), 『한국의 세시풍속』, 형설.
- 장기근(2006), 『사자성어대사전』, 명문당.
- 장재천(2009), 「세시풍속의 사회교육적 의의」, 『한국사상과 문화』 47, 한국사상문
화학회, pp.187~214.
- 정연수(2007), 「태백시의 단오 세시풍속 연구」, 『강원민속학』 21, 강원도민속학회,
pp.235~275.
- 정뽕뽕(2012), 「한국과 중국의 단오 행사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상명대학교 대학
원).
- 조 용(2009), 「한국과 중국의 음식 속담의 비교 연구 -음식 속담 사전(1998)과 속담
사전(2006)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경기대학교 대학원).
- 조성산(2012),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조선 세시풍속 서술의 특징과 의의 -'중
국'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0, 조선시대사학회,
pp.183~221.
- 조평환·이종호(2006), 『우리말 속담 사전』, 파미르.
- 중구문화원 편집실 편(2001),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중구문화』 5, 중구문화원,
pp.91~10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8), 『설 명절·대보름 등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행위
엄단』.
- 진성수(2011a), 「한국의 여름 세시풍속」, 『식품문화 한맛한얼』 4-2, 한국식품연구

- 원, pp.122~129.
- 진성수(2011b), 「한국의 가을 세시풍속」, 『식품문화 한맛한얼』 4-3, 한국식품연구원, pp.240~249.
- 진성수(2011c), 「한국의 겨울 세시풍속」, 『식품문화 한맛한얼』 4-4, 한국식품연구원, pp.366~372.
- 최인학(2008), 「한·중·일 세시풍속의 비교연구를 위한 제언」, 『비교민속학』 37, 비교민속학회, pp.27~46.
- 최준식(2005), 『한국의 풍속 민간신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최상수(1960), 『한국의 세시풍속』, 흥인문화사.
- 천소영(2005), 『한국어와 한국문화』, 우리 책.
- 하옥경(2001), 「한·일 민속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동서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 한미옥·김지현(2003), 「세시풍속」, 『남도민속연구』 9, 남도민속학회, pp.263~301.
- 황영삼(2003), 「세시풍속에 나타난 러시아인의 삶」, 『국제지역정보』 7-1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pp.83~91.
- 황헌만 사진, 정승모 글(2001), 『한국의 세시풍속』, 학고재.
- 홍순석(2004), 『이천사람들의 삶과 놀이: 세시풍속·민속놀이』, 민속원.
- 陶立璠(1971), 『中國民俗의 理解』, 金文堂(김문당).
- 呂叔湘(1997), 『中國俗語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 崔鐘雷(2010), 『歇后語大全』, 吉林美術出版社.
- 曲彦斌(1996), 『中國民俗言語學』, 上海文藝出版社.
- 王濤(2007), 『中國成語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 許世旭(1998), 『중국문화개설』, 법문사.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2012), 『現代漢語辭典』.